

11

with IBK
I B K M A G A Z I N E

착착, 정리하는

2023.
November
vol.459



11 : November

찰찰, 정리하는

내 삶, 질서로운 생활

부쩍 상념이 드는 때입니다. 곧 세밑이잖아요.
스스로에게 바쁘고 정신없다는 이유를 대며
생각과 감정의 정리정돈을 미루고 있진 않나요.
이제, 큰숨 한 번 들이켜고 가다듬어봅시다.
그렇게 산란한 마음의 정리를 시작합시다.
빈 자리라고 꼭 다시 채울 필요 있나요.
그대로 훌가분히 두면 또 어때요.

당신의 **노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나온 **시간**들로

정리해주는 일

Contents

2023.
November
vol.459

착착,
정리하는

08

에세이

마음에 쏙어준
짐들을 정리하는 시간

10

슬기로운 생각

인생을 바꾸는
'생각정리'의 힘

16

IBK가 만나다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가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뮤지션 고영배

22

IBK NOW

들쭉날쭉, 오락가락하는 내 마음
IBK인들의 감정 정리 방법은?

30

IBK업글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독산역지점 김권우 대리

36

IBK맛집노트 ㉠

경상남도편

42

발길 닿는 길(국내편)

조선 왕조를 찾아가는 시간 여행
도심 고궁나들길

48

발길 닿는 길(해외편)

예술가의 숨결과 사색이 흐르는 길
프랑스 파리 센강

54

IBK산 ㉠

가을이에요, 어느덧 가지산
두려움 없이, 청춘답게

64

IBK버킷리스트

GO~!! 명명~!! 가족이 된 너와 나
반려견 어질리티 체험

70

IBK핸드메이드

매력적인 나를 위해
고유한 색을 찾는 시간

78

카툰으로 보는 역사

탁월한 정보 편집자 정약용

80

요즘, 시선

긴긴밤도 청량하게
하이블 레시피

84

IBK히어로

베트남의 금융 베테랑
하노이저점

94

히든챔피언

기업 경영의 꽃 ERP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다
(주)영림원소프트랩

100

창공, 날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IBK창공 기업
(주)클라우드, (주)비지트, (주)트립빌더, 샴팬픽

106

사소한 꿀팁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

110

우리말 한 걸음

외래어, 사투리 아니었어?

112

IBK뉴스

이달의 뉴스

114

이달의 이벤트

이달의 N행시 / 이달의 인증샷

117

부록

풍수지리 따라 다시 꾸며본
우리 집 인테리어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2023년 11월 1일 발행인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조민정, 김태경 편집위원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브랜드전략부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짊어진
짐들을 정리하는 시간

미니멀리스트처럼 우리 삶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누군가는 물건 하나에도 감정이 가득 실린다.

어떤 이들은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먼 미래에 후회할 일을 미리 염려하며 못 버리기도 한다.
그러다 이사할 때쯤이나 돼서야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라곤 한다.

그제야 버리지 못한 이유를 알았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맡겨진 임무나 책임, 수고로운 일이나 귀찮은 물건처럼
그 짐이 무겁거나 버거워서 정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짐을 쌓는 데도
시간과 공이 들듯이 비워내는 것에도 시간과 공이 필요하다.

오늘은 마음에 짊어진 짐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쓰면 좋겠다.

The 인생을 바꾸는 Power to Organize Thoughts

‘생각정리’의



힘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샬드 헬름스테터(Shad Helmstetter) 박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5만~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또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연구 결과,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를 생각하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다. 흥미로운 점은 생각의 95%는 어제 했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 복주환



Negative Thoughts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난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가? 보통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실패했는데, 나 역시 실패하면 어쩌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더 먼저, 더 많이 떠오를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현재의 안정을 지키는 데 신경을 쓴다. 너무나도 소중한 나 자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현재의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오히려 미래를 바꿀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집 안도 정리해야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듯 머릿속 생각 또한 정리해야 어떤 일이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생각정리가 어려웠던 이유와 해결책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머릿속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막상 생각정리를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거나 하얘지기 일쑤다. 대체 생각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머릿속은 물론이고 나의 머릿속조차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정리는 집안 정리와는 다르다. 생각정리 개념을 정리하며 알게 된 정리의 원리 가운데 ‘나분배’가 있다. ‘나열, 분류, 배열’의 줄임말로, 모든 정리는 이 3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집 정리할 때를 생각해보자. 우선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전부 꺼내 ‘나열’한다. 그런 다음 같은 물건끼리 ‘분류’한다. 옷정리를 한다면 여름옷은 여름옷끼리, 겨울옷은 겨울옷끼리, 그릇정리라면 밥그릇은 밥그릇끼리, 국그릇은 국그릇끼리 분류하는 것이다. 그다음 ‘배열’을 한다. 자주 쓰는 옷은 잘 보이는 곳에, 자주 쓰는 그릇은 손이 닿기 쉬운 선반에 우선순위를 생각해 배열하는 식이다.

집 안에 있는 쓰레기나 물건은 확실히 눈에 보인다. 보이는 물건을 버리거나 분류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집 정리는 대개 못한다기보다는 귀찮아서 하지 않는 쪽에 가깝다. 그런데 생각정리는 어떤가?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쪽에 더 가깝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 알고 보면 생각정리도 집정리와 마찬가지로 '나분배'의 원리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스케줄관리를 생각해보자.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열'한 다음, 업무와 일상, 학업 등의 항목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 순서로 '배열'하면 된다. 이처럼 생각정리 또한 생각들을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다만 이 과정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생각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정리하려 하지, 손은 좀처럼 활용하지 않는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모나 기록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다. 물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은 머리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떨까? 회사의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치 수학문제를 풀 때 덧셈이나 뺄셈 같은 간단한 문제는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숫자가 커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머릿속 계산만으로는 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땐 손을 함께 써야 한다.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시각화하는 게 필요하다. 엑스레이로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듯,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생각정리가 쉬워진다.



생각의 휘발성을 보완하려면

생각을 정리할 때 어딘가에 기록하면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뇌에는 작업 영역인 워킹메모리가 있다. 워킹메모리는 뇌에 입력된 정보를 몇 초 혹은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만 보존하면서, 그동안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정보처리가 끝나면 바로 삭제한 다음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다. 이런 기억 시스템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하드디스크(HDD)는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곳과 같고, 램(RAM)은 일시적 저장소인 워킹메모리와 같다. 컴퓨터와 똑같은 정보처리 과정이 우리 뇌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떠올리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각의 휘발성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한다. 어디서든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 심지어 샤워하면서도 기록할 수 있도록 샤워실에 녹음기를 두는 경우도 있다. 내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잠을 자다가 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침대 옆에 메모장을 둔다. 가방에는 늘 작은 메모장이 들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메모 관리 앱인 '에버노트'를 활용해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메모한다. 급한 경우 카카오톡의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책을 읽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여백에 메모하고, 이동 중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기록해둔다.

메모와 기록을 잘하면 생각정리가 될까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결과는 메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도 모이면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 역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메모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단지 메모와 기록을 많이 하면 생각정리를 잘할 수 있게 될까? 냉장고에 요리 재료가 많다고 요리가 저절로 똑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생각, 정보, 지식, 아이디어 등)는 기본이다. 여기에 요리 도구(생각정리 툴)와 레시피(생각정리 방법)가 있어야 한다. 생각정리에는 '생각을 비우는 정리', '생각을 보관하는 정리',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가 있다. 지금 말하고 싶은 생각정리는 단순히 비우기만 하는 정리가 아니다. 그저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리도 아니다. 생각을 더 쓸모 있게 만들어내는



정리, 즉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다. 그런데 생각 설계는 단순히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툴을 사용하듯 생각을 설계하고 정리하기 위한 생각정리 툴(tool)이 있어야 한다.

생각정리스킬은 한마디로 '생각정리 툴과 원리를 활용해 기술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생각정리스킬을 터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하는 만큼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고, 목표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생각정리 툴의 종류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는 국내·외에 이미 300가지가 넘게 나와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정리의 필요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생각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툴은 무엇이 좋을까?

생각정리 툴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봤다.

- **트리(Tree)형** | 가지 형태로 뻗어나가는 방식이다. 마인드맵, 로직트리, 피라미드 구조가 대표적이다.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세분화할 때 유용하다.
- **매트릭스(Matrix)형** | 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다라트, SWOT 매트릭스, 우선순위 매트릭스 등이 여기 속한다. 각각의 항목을 비교·대조하며 정리할 때 효과적이며, 빈칸을 채워 넣고자 하는 심리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다.
- **이미지(Image)형** | 그림이나 도형을 그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텍스트는 읽고 나서야 내용이 이해되지만, 이미지는 보는 즉시 이해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생을 바꾸는 생각정리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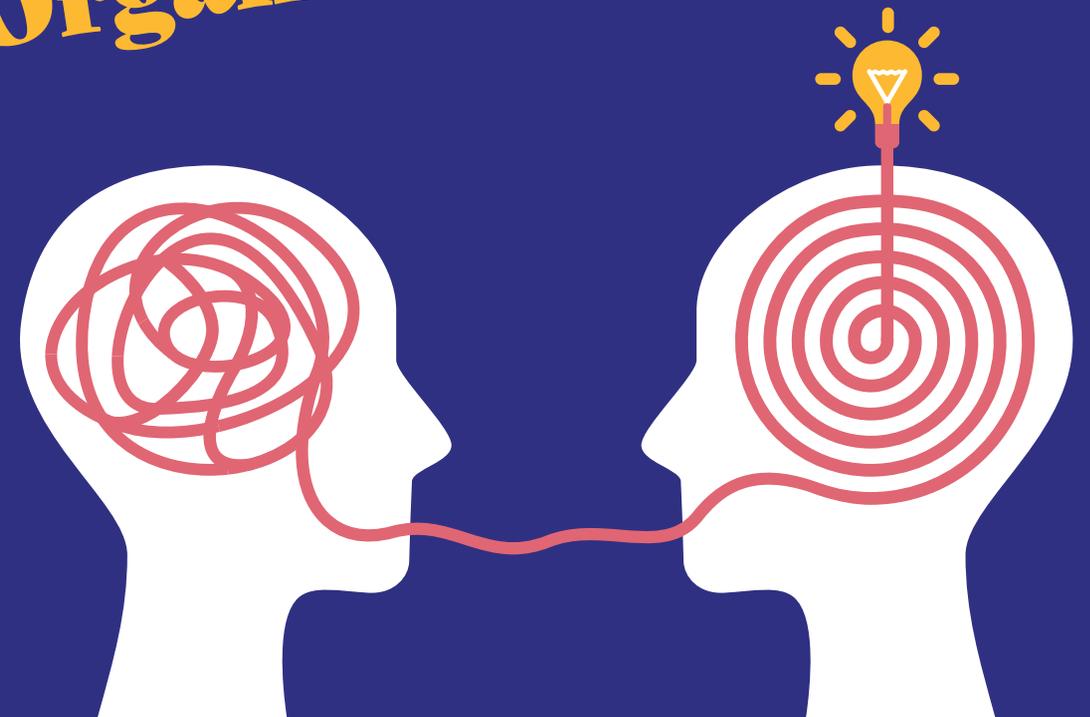
우리의 말, 글, 행동은 모두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두서없이 생각하면 말 역시 두서없고, 아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글에서 논리를 찾기 어렵다. 생각이 복잡하면 행동 또한 산만해져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일단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리해야 목표 설정도, 시간 관리도, 문제 해결도, 아이디어 기획도 잘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쓸모 있는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그냥 떠오르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생각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얼마든지 쓸모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 멋지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생각한 대로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처럼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나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Organizing Thoughts



복주환 작가
생각정리클래스 대표. <생각정리> 시리즈의 저자, 유튜브 채널 '생각정리클래스 복주환' 운영자. EBS를 시작으로 KBS, MBC, YTN, TBC 등의 방송사와 삼성, 현대, 포스코, 외교부, 교육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생각정리와 말하기'를 주제로 연 250회 이상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생각정리'를 통해 많은 이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꿈꾼다.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가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뮤지션 **고영배**

‘하루 종일 걷다가 보면 가장 행복한 걸 만나게 되길. 별빛처럼 소중하게 작은 빛이 선명하게 보여.’
밴드 소란의 노래 ‘우리, 여행’ 가사처럼, 첫 번째 책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를 펴낸 고영배의 이야기처럼
행복이란 작고도 선명하게 보이는 빛 같아서 가닿을 방법을 궁리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글 편집실 사진 김성재



글 쓰는 입장이 됐다고 갑자기 교훈을 준다거나 허세를 부리면, 책에 그런 게 남으면 시간이 지나 후회할 것 같았어요.

Q. ‘밝다’는 것은 선량함, 포근함, 단단함을 갖춘 고영배만의 이미지를 가리키는 것일 텐데요. 그런 인상을 자칫 평범하다고 하지만, 요즘은 ‘선함’이 고유한 능력인 시대잖아요.

스스로의 장점이자 단점,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걸 추구한다는 이유로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연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나로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모습을 설정해놓고, 거기 맞춰 SNS를 꾸미거나 소속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담기는 대신 제 SNS는 난잡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하하. 책에도 밝고 행복한 모습을 부각하려 하지 않았어요. 출판사나 소속사 등 함께 작업하는 이들이 자연스러움을 담는 데 동의하고 존중해줬죠. 솔직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책에 담으면 그동안 발표했던 음악들의 증거가 될 것이고, 앞으로 하는 음악에도 좋은 설명이 될 거라는 데 뜻이 모였어요. 그런데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라 집필할 때 애를 먹었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마감이 임박해선 무라카미 하루키 작전으로 아침마다 일정 시간에 무조건 글을 썼어요. 그렇게 34편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 나왔고요.

Q. 가족 이야기나 개인사가 꽤 나오는데, 책을 읽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음악 활동이나 방송 출연하는 저를 보면서 가족들은 ‘노래 좋다’, ‘TV에 나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책은 처음이잖아요. 글 쓸 땐 보여준 적이 없는데, 책으로 ‘짤’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글 쓰는 걸 구경하러 오면 매번 화면 가리기 바빴죠. 출간 후 아내, 첫째, 둘째에게 메시지를 써서 선물했어요. 아내는 너무나 좋아했고, 읽을 때마다 눈물 난다고 했어요. 둘째는 글을 못 읽지만, 안 주면 토라질까 봐 줬고요. 큰아이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Q. 첫 번째 에세이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를 펴냈죠.

출판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고사했어요. 방송 등 여러 매체에서 죽 이야기해왔으니 책으로 쓸 것이 더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편집자가 말로 했던 것을 글로 옮기자고, 모든 사람이 제 말을 다 들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들은 사람에게나, 처음 듣는 사람에게나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거란 말에 설득됐죠. 소란의 음악이나 방송 프로그램 속 모습, 언행에서 느껴지는 밝은 바이브를 어여쁘게 봐준 덕인 듯해요.

밴드나 음악 얘기보다 가족에 대한 부분, 아빠의 어린 시절을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아이가 귀여운 게 짝 펼쳐 읽으면 책이 험하다고 조금씩 열어서 봐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또 제가 산타로 활동(!) 하는 걸 아이가 눈치챈 듯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 읽었다면 그 부분까지 알아버린 셈이죠. 모르는 척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옮겨올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Q. 소란의 음악이 그랬듯 책에서도 솔직, 담백, 유쾌, 산뜻함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쯤 되면 ‘솔직과 담백’이아말로 인간 고영배를 이루는 성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일관된 반응이 솔솔 읽힌다는 것,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부분을 이끌어나갔다고 의도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런 재주가

없기도 하고요. 특별히 잘 읽히게끔 기술적으로 쓸 줄도 몰라요.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쓰자는 생각이었어요. 단, 가르치려 하거나 자랑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후회할 테니까요. 감정을 솔직하게 쓰고, 있었던 일을 적었기 때문에 훗날 씁스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글 쓰는 입장이 됐다고 갑자기 교훈을 준다거나 허세를 부리면, 책에 그런 게 남으면 시간이 지나 후회할 것 같았어요. 말맛이나 글발, 문장력에 대해선 애초부터 내려놔어요. 문장을 수려하고 멋지게 쓰려고 했다가는 책을 못 낸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신경 쓰면서 다듬어 쓴 문장들이 있는데, 출간 전 공개한 티저에 그 글을 뽑았더라고요. 재주를 부릴 수 없는 대신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솔직하지 않은 것을 고르고 더는 건 정말 열심히 했어요.



Q. 책에서 꿈꿨던 건 다 이룬 삶이라고 했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평생 운 하나는 기가 막히다 하면서 살았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좋은 사람들, 좋은 멤버들, 좋은 동료들, 좋은 회사를 만나 함께 이뤘던 일이 가장 큰 운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통해 '근자감'이 생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뭇 모른 채 시작한 일들이 운 좋게 이뤄진 듯해요.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잖아요. 막상 해보면, 배우면 못할 게 없는데 말이죠. 인생이 이런 일의 연속이지 않나요. 내 영역이 아니다 싶어서 '쫄면 결국 남의 일이 되죠.' '이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한번 해볼까' 발이라도 담그면 의외로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자감에서 비롯한 시도와 성공, 성취가 자긍심이 되고 자존감이 돼요.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돼요.

Q.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힘들 땐 육체로 풀어야 한다는 걸 요즘 들어 실감해요. 주로 공연이 없을 때, 바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게 도움돼요. 땀 짝 빼는 반신욕도 하고요. 능동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보려고 노력해요.

Q. 세말이 가까워지니 분주하면서도 헛헛해지잖아요. 이맘때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연말이 싱숭생숭한 이유 중 하나는 올해가 이렇게 간다, 한 살을 더 먹는구나 같은 생각 때문이잖아요. 아예 능동적으로 새해 계획을 세워요. 내년에 하고 싶고 설레는 일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연 일정이 꼭 찬 연말보다는 공연이 끝난 1, 2월

무렵 싱숭생숭해지는데, 봄 공연을 구상하거나 합주를 해요. 공연을 기획할 때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만큼 설렘이 커요.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재미를 끌어낼까, 하는 설렘으로 공연 준비를 감당하는 거죠. 준비할 동안 쌓인 스트레스 대부분은 무대 위에 섰을 때 풀려요. 자급자족하듯이요.

Q. 앞으로 계획은요.

11월에는 소란의 앨범이 나오고, 12월에는 소란의 공연이 있어요. 이런 일정과 더불어 늘 계획하는 건 어떻게 하면 팬들과 오래오래 공연 즐기면서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위 '국민 밴드'처럼 많은 사람 곁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음악을 오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곧 목표예요.



고영배가 <with IBK> 매거진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책 제목 덕에 '행복'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행복을 정의하기보다 우리 곁의 행복을 만나고 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바로 '호들갑'. 좋을 때 좋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행복을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To. IBK 기업은행

고영배
보시는 모든 분들 꼭 행복하세요~



들쭉날쭉, 오락가락하는 내 마음 IBK인들의 감정 정리 방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감정들. 기쁘고, 행복한 좋은 감정이 있듯이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런 감정들이 겹겹이 마음에 쌓이다 보면 우리 삶을 짓누르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감정을 정리하는가? IBK인들에게 나만의 감정 정리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정리 편집실

IBK인의 설문조사

1위



아무 생각 없이 휴식

2위



취미로 기분 전환

3위



청소로 주변 정리

4위



자연 속에서 힐링

5위



가족과 함께

6위



기타

감정이 오락가락할 땐 역시 쉬는 게 최고. 게임하기, 맛있는 것 시켜 먹기, 집에서 넷플릭스 정주행, 반신욕 하며 ‘멍때리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일찍 자기 등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몸과 마음에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1위를 차지했다. 생각과 감정이 넘쳐흐를 땐 머리와 마음을 폭 쉬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이 복잡할 때는 좋아하는 취미활동으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운동인 취미인 사람은 헬스장 혹은 야외에서 달리기로, 식물 집사들은 반려식물을 돌보면서 기분 전환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 외에도 요가, 수영, 카메라 들고 경치 좋은 곳 사진 찍기, 글쓰기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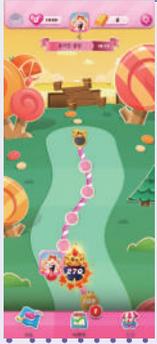
감정을 정리하려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하는 게 최고인 IBK인들도 많았다.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집 안 대청소, 옷장 정리, 화장실 청소 등 청소하면서 들쭉날쭉한 감정도 같이 정리하는 것. 감정이 복잡할 땐 청소를 해보자.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해진 집을 보면 어느새 마음도 차분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산속을 거닐며, 산책하면서 감정을 정리하는 IBK인들도 있었다.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 퇴근길에 만나는 노을 진 하늘,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상쾌한 공기, 청량감이 느껴지는 넓은 바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 어느새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IBK인들. 가족들과 영화를 보고, 낚시하러 가고, 사진도 찍고, 또 귀여운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 금세 기분도 좋아지고, 감정도 정리가 된다고 한다. 복잡하고 힘든 감정은 긍정적이고 사랑의 감정으로 덮여 버리자.

거울 속 나를 보며 감정을 다스리기, IBK의 대배우 이제훈 보면서 마음을 정화하기, 살 건 없어도 시장에 가서 사람 구경하기, 호탕하게 웃어보기 등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 정리 방법을 이야기 해준 IBK인도 있었다.

IBK인의 감정 정리 방법은



캔디 크러쉬사가
게임을 한다.
포항공단지점 박윤경

편한 옷에 모자 쓰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집 주변 공원 한
바퀴 지나가는 땀방이 구경하
면 힐링입니다.

IT그룹 한소영



머릿속이 복잡할 때 집 근처 가까운 산을 걷다
보면 땀도 나고 산 정상에 올라 셀카 한 장 찍
고 내려와 따뜻한 물에 씻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울산남외동지점 정신옥



마음이 복잡할 땐 서점
에 가서 책들을 들춰보
니다. 그러면 생각 정리
도 되고 기분, 삶의 의욕
UP~!!
독산역지점 정나라

퇴근할 때쯤이면 하늘을 바
라보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
요. 노을 진 하늘, 비오는 하
늘, 구름 낀 하늘, 매일 다른
하늘의 모습 속 오늘 나와
맞은 구석을 찾아보면 힐링
되고 위로도 받습니다.



가좌공단지점 신송은

감정이 요동칠 때 차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서 이 사진을 봅니다. 이 사진은
키위가 아니라 제 딸아이 사
진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
앉혀 주는 저의 마법 같
은 존재입니다.

남대문지점 고인실



키우는 고양이와
눈을 맞추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동마산지점 임란희



아이브의 'I AM' 노래를
듣습니다^^

산본역지점 노이슬

플랜테리어! 키우고 있는 화분의 잎을 하나하
나 닦아주고, 영양제도 꽃아주고 자리 배치도
바꿔줍니다! 푸릇푸릇 싱그러운 식물을 보면서
저의 어지러운 마음을 정화시켜요!

송탄지점 방재연



청소요~ 몸이 힘든 만큼
생각도 정리되고
깨끗해진 것을 보면
기분도 좋고~

경수지역본부 김은미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자연을
보며 개아들 '똥'과 빠르게 걸다
보면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히
면서 몸이 개운해지고 잡생각도
사라져요.

청주지점 이경아



에버랜드에 사는 푸바오
유튜브 계속 무한재생합
니다! 마음이 아주 편해져
요 ㅎㅎ

외환사업부 신혜수



남자친구랑 반려견과 함께 카페 가기!!

삼송테크노지점 이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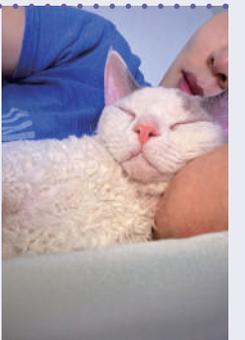
요즘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금융연수원 연수 시절 동기들과 함께했던
시간의 사진을 보면서 힐링합니다.

청담동지점 김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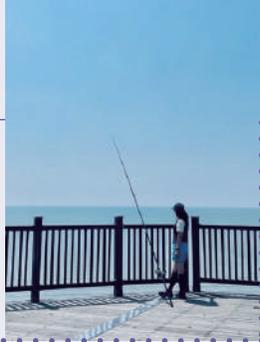
반려묘와 놀아주고
같이 낮잠 자면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만수동지점 조상숙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야죠^^

죽전지점 정영미



캠핑 가서 불멍

서교동지점 장상민



안입고 방치된 옷들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받는 똑똑한 정리 굿윌스토어 물품 기증! 개운하고 팬트리 정리도 되고 새 옷 살 핑계도 생기고 부듯해집니다.

삼성동지점 김영은

아이들과 조용한 곳에 가서 낚시하기 낚시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조치원지점 이혜정



운장도 정리하고 쌀인 먼지도 닦다 보면 어느새 차분해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프로세스혁신부 이미애



동네 고양이 보러 공원가기

평택지점 배준열



물속에 들어가면 잡념이 싸악~가세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합니다.

정보보호부 정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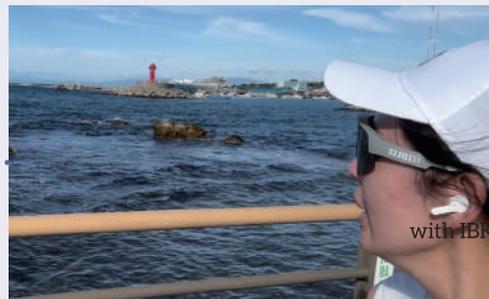
정년기에 접어들면 특히 감정 회복이 심해지는데 그런 날은 맨발로 맨땅을 30분 정도씩 걸으며 사색을 즐겨합니다^^

개인과객부 권영탁



달리기를 합니다. 어지러운 감정에 휩싸이려고 할 때 시원한 바람 맞으며 입에서 쇠 맛 날 때까지 달리고 나면 희한하게도 힘들었던 기억이 희미해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달리고 나면 커다란 성취감에 정신 못 차리게 행복해지고요. 외력을 버티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절실히 필요해요.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단연코 달리기 이 가을 모두 달리기 시작하시고 행복하세요!

강남기업금융센터 박민선



모노블럭 조립하면서 천천히 감정을 조절합니다.

마산내서지점 이상욱



감정이 들쭉날쭉할 땐 먹방이죠~^^ 평소에 좋아하는 거 실컷 먹으며 힐링해요.

워커힐지점 정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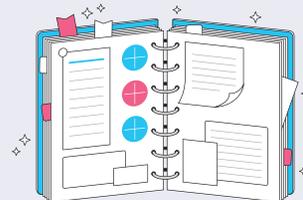
사과나무 집어 던지는 친질라 보기!

동부이촌동WM센터 구슬이



산을 오릅니다. 정상이라는 단순한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걸어가며, 자연의 청량함을 느끼면 머리가 싹 비워져서 좋아요^^_^^

초읍동지점 강동희



다이어리 작성합니다. 차분하게 일들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입니다^^

양재동지점 한완수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본다.

파주교하지점 이경호



반려견은 존재만으로도 모든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퇴근하고 들어갈 때 몸 길이 두 배를 풀쭉풀쭉 뛰는 모습, 같이하는 산책과 목욕,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오늘도 고맙다 우리 새끼들~~~~~

신정동지점 강연재



귀여운 반려동물과 산책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하면 기분이 차분해지고 재충전됩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문래중앙지점 이미혜

가족들과 실내 게임장~ 게임도 하고 인생네컷도 찍고! 프로세스혁신부 이혜진



마음이 어수선하고 생각이 많아질 땐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가져요^^

송현동지점 권정자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을 땐, 밖으로 나가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땀 흘리며 뛰고 나면 기분도 나아지고 상쾌해집니다. 달리기 정말 강추! 기업디지털사업부 황재용



미니 어항 들여다보며 멍때리기
김포장기지점 조세미



나만의 감정 정리의 최고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이어폰 끼고 헬스장에서 쇠질하며 땀 흘리는 게 최고지요!
감정 정리+근육 펌핑의 효과~^^
프로세스혁신부 정웅철



대청소를 마친 후 바다가 보이는 커피숍에서 멍때리기
창원중앙지점 박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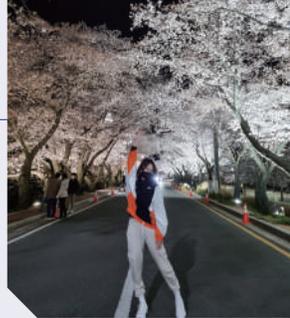
마음이 싱숭생숭 들쭉날쭉할 땐 달리기를 합니다.
나 있잖아~! 세상에서 달리기가 제일 좋아~☆
무릎 연골 닳을 때까지~
직원행복부 윤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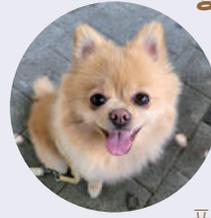
돌뱅이가 되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대치역지점 최정은



목적지를 정해 리닝과 산책을 반복! 주위를 둘러보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중계동WM센터 조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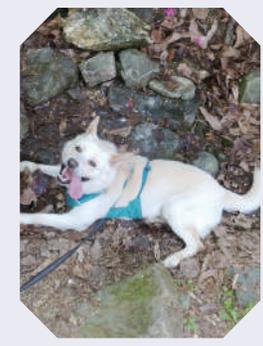
강아지랑 교감하기. 강아지는 저에게 조건 없는 무한사랑을 쏟아주기에 강아지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시~~원한 맥주 한잔 들이켜며 호탕하게 웃어보기 하하하!
파주광탄지점 조현상



귀여운 우리 개를 꼭 껴안고 있지! 같이 산책을 나가 오래 걸기!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에 환한 거, 힘든 거, 슬픈 것들이 조금씩 잊혀집니다.
애정도 샘솟고요 ㅎㅎ
제천지점 김진혁



우리 대배우! IBK기업은행 모델! 갈생긴 이제훈 배우님 포스터를 보며 시선 정화, 마음 정화합니다.
가양동지점 노하혜



with IBK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살 게 없어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요. 장사하는 분들 얼굴도 쳐다보고,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 구경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요. 무엇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삶에 대한 의욕이 느껴져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랑 나눠 먹을 먹거리들을 양손 무겁게 들고 집에 돌아오면 쓸모 있는 쇼핑을 했기에 죄책감 NO! 나눠 먹는 기쁨 YES! 행복지수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마산지점 김유미

무작정 나가서 달리기나 운동을 합니다.
땀을 쪽 흘리고 나면 개운해져요.
IT금융개발부 김선희



코인노래방에 가서 댄스댄스~ 들춰들춰~!!
약수동지점 권혜민



카메라 들고 이곳저곳 여행하기! 다녀와서 찍은 사진 보정하기!
평택비전동지점 유성



맛난 음식으로 당 충전하고 기분 전환한 후, 꿀맛 같은 낮잠으로 수면도 보충하고 머리도 비우는 게 최고죠!!
경수지역본부 오병석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나 자신 얼굴을 보며 감정을 다스려요.
카드사업부 박서영



반려식물 관리하기- 초록이들을 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평촌아크로타워지점 김선명



귀여운 우리 집 강아지 사진이랑 영상 몰아보기
기업지원부 김재경



요가 및 명상하기
청량리지점 이지우



속속 이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독산역지점 김권우 대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라는 명언을 남긴 무하마드 알리. 8개 체급 챔피언을 거머쥔 매니 파퀴아오. 오직 주먹으로만 상대를 공격하여 ‘강함’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복싱선수들이다. 이 복싱이 보여주는 ‘강함’에 매료된 독산역지점 김권우 대리. IBK 내 제2의 매니 파퀴아오를 꿈꾸며 그의 손은 오늘도 ‘잼’을 날리고 있다.

글 장솔 사진 김성재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Kim Gwonu



복싱의 '강함'에 이끌리다

2007년, 전 세계 스포츠팬들의 시선을 라스베이거스로 집중시켰던 세기의 복싱 경기가 있었다. 바로 오스카 델라 호야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간의 WBC 슈퍼 월터급 타이틀매치. 당시 두 선수 모두 무패의 기록으로 여러 체급을 정복한 전설적인 파이터였기에 많은 복싱 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엔 충분했다. 당시 상하이 여행을 하고 있던 중학생 김권우 대리는 이 세기의 경기를 통해 복싱의 세계에 빠지고 말았다.

“상하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우연히 그 세기의 대결을 보게 됐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가 있는지, 저렇게 휘두르는 펀치를 맞고도 버티는 선수들을 보고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중국어 해설은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온전히 경기에 빠져들었어요. ‘강함’ 그 자체를 목격하고 나니까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복싱장에 등록하면서 복싱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복싱은 김권우 대리에게 어느새 진심이 되었고,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나가기 위해 선수 못지않은 식단과 훈련을 병행하며 우승까지 차지하는 복싱 고수로 거듭나게 되었다.

“처음 출전한 울산시복싱협회장배 생활복싱대회 고등부 65kg급에서 3전 3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제가 맞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카운터로 응수하는 경기를 펼쳤고, 3전 모두 KO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두 번째로 나간 복싱대회는 2018년 마포구에서 열린 생활 체육 복싱대회였는데 당시 음주와 폭식으로 늘어난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복싱을 다시 하게 됐어요. 관장님의 권유로 대회를 준비하게 됐고, 그 좋아하던 술과 고기를 끊고, 체지방 3일 전부터는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한 달 만에 총 10kg을 감량해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운 좋게 부전승, 판정승, 그리고 결승에선 KO로 승리



하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처음 마신 파워에이드 2통이 얼마나 꿀맛이던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열심히 꽃은 펀치는 실력으로 돌아온다

‘잡’, ‘훅’, ‘리버샷’ 등 다양한 복싱 기술이 있지만 김권우 대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속빵’ 기술. 상대방의 라이트를 더킹(머리를 오른쪽, 왼쪽, 아래로 숙여 피하는 방어 기술)으로 피하고 상대방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한 것을 이용해 레프트로 상대방의 안면에 주먹을 꽃는 카운터 기술이다. 오소독스(오른손잡이)에게 잘 먹히는 기술로 사우스포(왼손잡이)인 김권우 대리에게겐 최적의 기술이라고 한다. 또한 복싱은 3분이라는 긴 라운드를 버텨내야 하기에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한 운동이다. 결국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초반에 너무 힘을 몰아붙이게 되면 후반에 쉽게 체력이 떨어져 버티지 못한다.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가 중요한 만큼 요즘은 크로스핏 운동을 겸하며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김권우 대리. 또한 복싱 팬으로서 중요한 경기를 꾸준히 시청하는 것도 김권우 대리의 연습 방법이다.

“복싱이라는 스포츠는 진실된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는 실력으로 돌아오거든요. 땀은 스텝만큼, 허공에 내리꽂은 펀치 수만큼 정직하게 내 몸에 배어 실력으로 돌아오는 점이 복싱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또 평소에 내향적이던 성격도 복싱을 하고 나서부터 외향적으로 변했다며 미트 연습을 하는 김권우 대리 눈빛엔 어느새 웃음기는 가시고 진지함만이 묻어나왔다.

“코뼈가 약해서 한 대만 맞아도 코피가 쉽게 나는데, 어머니가 지혈에 효과적이라고 우영 반찬을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안 맞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싱을 연습하면서 덜 맞는 아웃복싱으로 저만의 복싱 스타일을 고집하게 됐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약한 제 코를 잘 지키고 있네요.(웃음) 복싱을 통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악바리 근성도 생긴 것 같아요. 스파링하다 보면 턱을 맞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도 있고, 리버샷을 맞고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아플 때도 있는데, 이 아픔을 다 버티고 끝까지 경기해야 하거든요.”

내게 행복을 주는 존재, 복싱

“강남에 있는 복싱장에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리쌍의 개리 형이 그 복싱장을 다녔어요. 당시 제가 힙합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개리 형과 같이 다닌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일부러 개리 형이 운동하는 시간 때에 맞춰 가고, 운동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혼자 내적 친밀감이 생겼어요. TV에 개리 형이 나오면 너무 반갑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복싱은 저에게 행복을 줍니다.”

복싱을 통해 좋아하는 연예인도 보게 됐다며 웃으며 말하는 김권우 대리. 샌드백을 칠 때 걱정과 고민



이 사라지고 오롯이 펀치에만 집중하는 그 순간, 상쾌한 기분마저 드는 펑펑 터지는 파열음 소리, 평소 연습했던 기술이나 콤보가 상대방에게 적중할 때 느껴지는 짜릿함. 김권우 대리에게 복싱은 출구 없는 매력덩어리였다.

“40대, 50대,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복싱을 계속하고 싶어요. 생활체육 복싱대회 경기에 가면 중장년층 경기가 열려요. 온 가족이 응원석에서 아버지 혹은 배우자, 삼촌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열정적으로 응원하는데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부럽더라고요. 나중에 손자한테 복싱을 가르쳐줄 수 있는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채찍 같은 잼을 날려보고 싶지 않은가? 번개보다 빠른 스텝을 밟아보고 싶지 않은가? 정적인 운동에 무료해졌다면 하는 만큼 내 몸과 실력으로 증명되는 복싱의 세계에 입문해보자.



IBK 업글인이 알려주는 꿀팁

①

기초훈련을 게을리하지 말 것

지루하지만 실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반석이 되는 기초훈련. 줄넘기, 스텝 훈련은 가장 지겹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복싱은 손이 아니라 발로 한다는 말이 있듯이 기초훈련을 성실히 하자.

②

샌드백을 통한 펀치 연습도 꾸준히

펀치력을 기르는 것도 복싱에서 중요한 훈련 중 하나이다. 펀치력이 늘지 않는 것 같다면 샌드백을 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샌드백이 곧 부서질지도.

③

스파링을 통해 실전 경험 쌓기

복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며 하는 운동이기에 실전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 스파링을 겁내지 말고 충분한 연습 후 기회가 주어질 때 과감하게 스파링에 도전해 보자.

우리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

경상남도편

신선한 해산물과 시원한 국물 요리가 유명한 경상남도
이번 달에는 경남의 진짜 맛집들을 모두 소개한다.

편집실



굴 요리 전문점 거제도굴구이

10월부터 3월까지만 운영하는
굴 요리 맛집.

- ☎️ 굴구이 대 45,000원
- 📍 경남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474
- ☎️ 055-632-9272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남원Y100)@비비리(비비리)

거제 현지인 추천 맛집 더소풍

살살 녹는 차돌박이와 더불어
불소를 즐길 수 있다.

- ☎️ 투썸 차돌삼합 (2인) 40,000원
- 📍 경남 거제시 상동5길 39
- ☎️ 055-638-0028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지니17)



김해 장유 한우 맛집 몽돌

육사시미 맛집으로 유명하다.

- ☎️ 육사시미 소 60,000원
- 📍 경남 김해시 능동로 189
- ☎️ 055-313-6086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살찐공순이)

냉삼과 차돌된장찌개의 컬래버레이션 88회관

7일간 냉장숙성한 100% 암태지의
풍부한 육즙을 느낄 수 있다.

- ☎️ 급냉삼겹살 8,800원
-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8
- ☎️ 0507-1328-3588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호강남리리)

2023 November

싱싱한 회, 푸짐한 밑반찬 경성회식당

4인에서 모듬회를 시키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 ☎️ 모듬회 대 100,000원
-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5길 24
- ☎️ 055-637-6144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우블리맘)

거제 앞바다 부 홍포촌닭집

펜션과 함께 운영하는
닭 요리 전문점.

- ☎️ 촌닭도리탕 소 47,000원
-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거제남서로 735
- ☎️ 055-632-9251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지니17)



복 요리 전문점 일송생복집

마산·창원으로 나들이 갈 때 찾는 복집.

- ☎️ 복지리 변동
- 📍 경남 김해시 인제로91번길 20
- ☎️ 055-322-8921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살찐공순이)



남해 바다의 맛 갯내음식당&펜션

고급스러운 식기와 화려한 밥상으로
눈과 입이 즐겁다.

- ☎️ 모듬장정식 25,000원
-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7
- ☎️ 055-867-1656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JK81)



밀양 맛집 소전걸

제대로 된 한우 국밥을 즐길 수 있는 곳.

- ☎️ 국밥(한우 국밥) 10,000원
- 📍 경남 밀양시 미리별중앙로6길 35-11
- ☎️ 055-354-8899



육전을 담은 냉면 하주옥 진주냉면

음식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 진주 물냉면 11,000원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하동길 8-11
- 055-853-9005

식육처리기능사가 운영하는 고깃집 설야역

특등심덧살과 순두부찌개가 맛있는 고깃집.

- 특등심덧살 13,000원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호1길 11
- 010-4619-1888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디헤디헤)

신월동 데이트코스 라루마까

창원에서 만나는 인생 파스타 맛집.

- 감자뇨끼 16,000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00
- 070-7868-7970



양산 아구요리 전문점 명성가 본점

기존 불고기와 전혀 다른 아구 불고기가 인기다.

- 아구 불고기 소 43,000원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역1길 20
- 055-785-3131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안해리우)

식객 허영만도 반한 제일식당

육회비빔밥과 가오리무침이 환상적인 맛이다.

- 육회비빔밥 소 10,000원
-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길 37-8
- 055-741-5591

창원대 가성비 맛집 다정다맛

창원대생의 점심을 책임지는 가성비 한식집.

- 김치찌개 6,500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25번길 6-31
- 055-284-6114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바리자)

갈매기살 전문점 부산갈매기

양념구이, 소금구이 가리지 않고 다 맛있다.

- 갈매기살 소금구이 11,000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81번길 14
- 055-273-9282

60년 전통 생선국 전문 부영이할배집

깔끔한 생선국이 먹고 싶을 때 찾는 곳.

- 생선국 10,000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7
- 055-266-1256



with IBK



방문자 리뷰(@겜메니아)



고소한 누룽지와 오리의 만남 새벽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오리누룽지백숙이 인기다.

- 오리누룽지백숙 60,000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고개길 622
- 055-285-8747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여신남7)

생오리는 바로 여기 주남오리알

신선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오리고깃 맛집.

- 참숯불구이 250g 23,000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 93-21
- 055-297-7776

시원하고 깔끔한 고디탕 토담고디탕

고디(다슬기)가 워낙 몰라도 감탄이 나오는 맛이다.

- 고디탕 10,000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7
- 055-263-6682



뽕안 닭곰탕 같은 홍두깨닭갈국수

닭갈국수는 물론 콩국수까지 맛있다.

- 닭갈국수 7,000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00번길 14
- 055-239-2612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영은이맘)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미미기기)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수도 자연산횃집

진해 현지인이 몰래 가는 맛집이다.

- 모듬회 소 60,000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40번길 12-7
- 055-541-0490

바다뷰 돈카츠 맛집 카츠미도리

창원에서 일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일식집.

- 치즈카츠정식 16,000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486번길 18
- 055-263-8801



고즈넉한 한정식집 호수에그림하나

주남저수지 풍경과 함께 먹으니 배로 맛있다.

- 오리훈제 40,000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7기번길 61
- 055-251-7335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학문의즐거움87)

32년 전통 아구요리 전문점 황금식당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짬' 맛집.

- 아구점 소 30,000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7번길 32
- 055-297-2141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이하니)





매일 아침 가져오는 싱싱한 전복 동피랑전복마을

전복요리로 유명하기에 예약과 웨이팅은 필수다.

- 전복술밥세트 17,000원
- 경남 통영시 해상정2길 29
- 0507-1345-4406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하마90)

30년 전통 터줏대감집 울산다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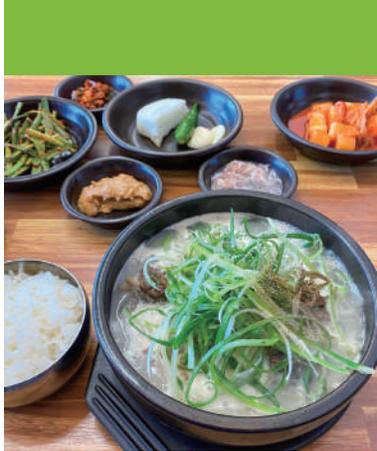
해녀들이 직접 잡은 순수 자연산 해물이 주재료다.

- 다짜기분상(2인기준 한상) 90,000원
- 경남 통영시 미수해안로 157
- 055-645-1350



IBK 임직원이 추천하는 경상남도 맛집 리스트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거제				
1	가조회식당	해산물	성포로3길 14	055-633-7307
2	거제도굴구이	해산물	거제남서로 3474	055-632-9272
3	경성회식당	해산물	성포로5길 24	055-637-6144
4	깡꼬미횟집&참치	해산물	중곡2로4길 28	055-635-3766
5	더꽃 매미성점	육류	옥포대청로 1350-6	0507-1341-6618
6	미소풍	육류	상동5길 39	055-638-0028
7	소향다원	한식	찰천로 148-12	055-633-8433
8	어가횟집	해산물	와현해변길 40	055-681-2240
9	어방가	해산물	지세포해안로 40	055-682-2468
10	지심도횟집	해산물	장승포로2길 23	055-682-0212
11	충남식당	한식	거제중앙로 1883-2	055-632-1332
12	하원항칠오리 거제점	육류	양정2길 46	055-632-2252
13	한고막두고막	해산물	일문면 지세포로 122	055-681-5556
14	홍포촌담집	육류	거제남서로 735	055-632-9251
고성				
15	모모회식당	해산물	배둔로 54	055-673-2157
김해				
16	몽돌	육류	능동로 189	055-313-6086
17	밀양돼지국밥	한식	인제로 91	055-337-1790
18	수백당 김해본점	한식	인제로 109	055-328-5554
19	수향방	죽식	김해대로2355번길 36	055-339-3569
20	아씨부두막	한식	계동로137번길 8-1	055-333-5888
21	일송생육집	해산물	인제로91번길 20	055-322-8921
22	중우랭고기	한식	서부로1403번길 23-66	055-313-5779
23	수재비칼국수전문점	면류	호계로 424-1	055-322-9050
남해				
24	88회관	육류	망운로9번길 28	0507-1328-3588
25	갯내음식당&편선	해산물	동부대로 37	055-867-1656
26	복만식당	해산물	남면로 1743	055-863-5151
27	소나무정	해산물	남면로 1530	055-862-1515



통영 여행 추천 맛집 복돼지국밥

아들아들한 수육과 돼지국밥으로 통영 여행 끝.

- 돼지국밥 9,000원
- 경남 통영시 발개로 120
- 055-645-493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rhxx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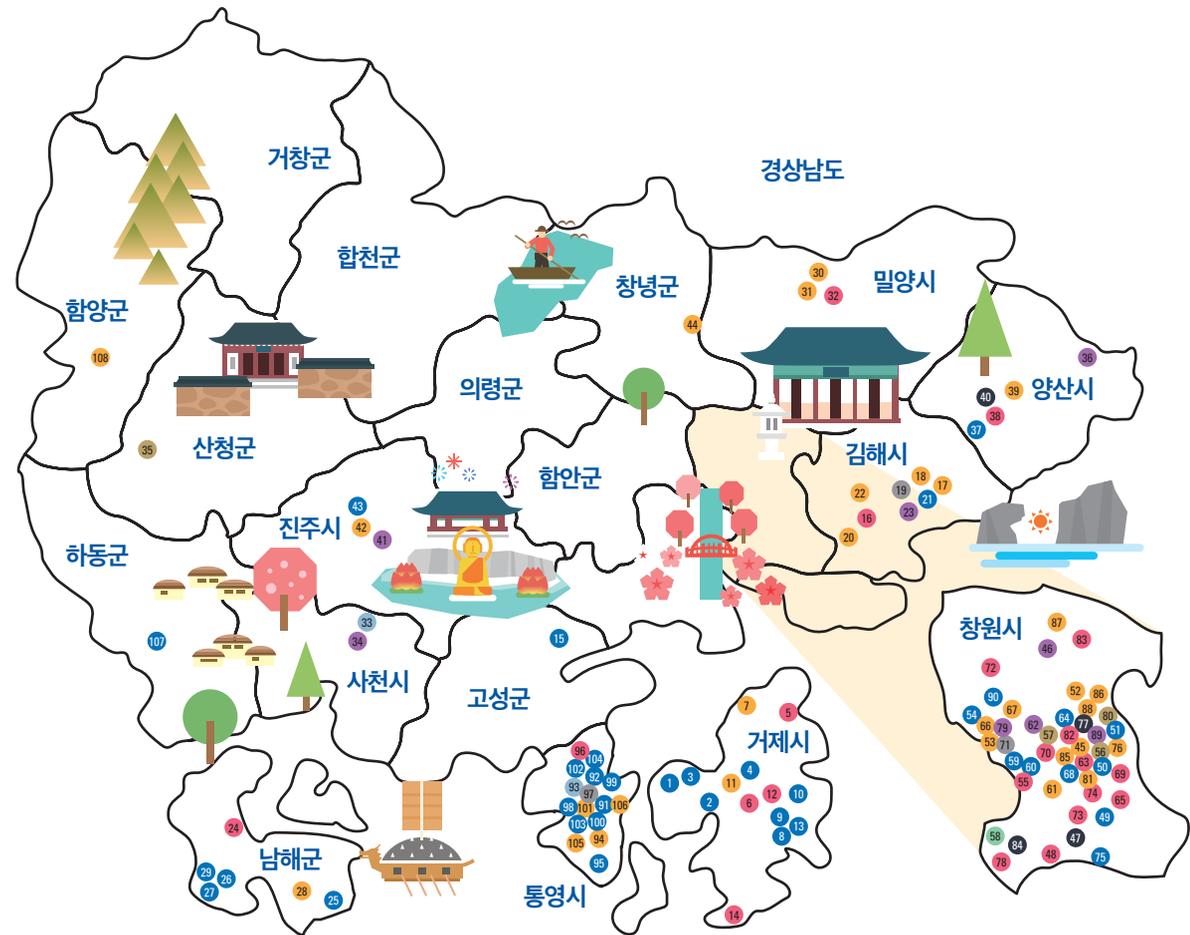


30년 전통 터줏대감집 방문자 리뷰(@미블가게)

자연산 회 전문 천상

매운탕, 구이, 회 모두 완벽한 맛이다.

- 생선구이 15,000원
- 경남 통영시 동호로 9
- 055-645-5661



● 한식 ● 분식 ● 육류 ● 해산물 ● 이탈리안 ● 면류 ● 아시아 ● 일식 ● 중식 ● 양식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51	나들이복집	해산물	상남로 228	055-261-5743
52	다정다맛	한식	퇴촌로25번길 6-31	055-284-6114
53	다정식당	한식	석전동로 22-1	055-253-0063
54	대야찜집	해산물	함성남2길 21	055-299-1840
55	동굴집	육류	가포해안길 35	055-221-0668
56	리뷰마카	양식	상남로 200	070-7868-7970
57	라스패란자	양식	원יד대로589번길 12	055-282-4114
58	라운하제	아시아	삼귀로 361	055-263-3332
59	마산오동동아구찜	해산물	아구찜길 17	055-222-2532
60	만신횟집	해산물	두대로55번길 10	055-277-5707
61	명동할매곰탕	한식	창원대로 726	055-282-3799
62	명사밀면	면류	명지로84번길 6	055-288-3994
63	모옥상	육류	상남로 75	055-606-8544
64	목포밴딩이	해산물	중앙대로 95	055-286-9889
65	무식곱창	육류	가을로15번길 50	055-282-9233
66	보급식당	한식	함성서길 10-8	055-297-5016
67	부산갈매기	한식	원יד대로81번길 14	055-273-9282
68	부영이합해집	해산물	중앙대로 37	055-266-1256
69	부짓집	육류	마디미로 21번길 11	055-287-7559
70	비원식당	육류	중앙대로 37	0507-1323-9700
71	뽕까소	중식	함포로 284	055-253-8453
72	산수정	육류	천주로 240-10	055-298-8989
73	새벽촌	육류	안민고개길 622	055-285-8747
74	삼산명가	육류	마디미로63번길 7	055-263-6618
75	수도 자연산횟집	해산물	이동로40번길 12-7	055-541-0490
76	수정골 한우가마솥국밥	한식	창이대로689번길 19	010-9349-8362
77	스시촌	일식	용지로249번길 1	055-287-1112
78	식당미원	육류	삼귀로486번길 19-6	070-8820-0691
79	옛날순칼국수	면류	양덕동2길 47	055-293-5600
80	오브셀라	양식	용동로57번길 18	0507-1306-4334
81	윤호내	한식	중앙대로 37	055-261-2383
82	조선의원우 본점	육류	용지로 58	055-289-9269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83	주남오리말	육류	주남로 93-21	055-297-7776
84	카츠미도리	일식	삼귀로486번길 18	055-263-8801
85	토담고디방	한식	중앙대로 37	055-263-6682
86	하림집	한식	용지로 291	055-281-2339
87	호수애그릴하나	한식	주남로71번길 61	055-251-7335
88	호호돼지국밥	한식	용지로 281	055-263-3889
89	홍두깨담칼국수	면류	중앙대로100번길 14	055-239-2612
90	황금식당	해산물	의안로27번길 32	055-297-2141
통영				
91	동피랑전복마을	해산물	해상정2길 29	0507-1345-4406
92	동피랑꾸봉	해산물	통영해안로 363-1	055-646-3697
93	명가총무김밥 본점	분식	통영해안로 339	055-644-0072
94	복돼지국밥	한식	발개로 120	055-645-4939
95	수봉식당	해산물	일문2길 4	055-644-1130
96	수향상계탕	육류	의안로59번길 9-1	055-253-0569
97	심가네해물탕	죽식	새터길 74-4	055-649-8215
98	이촌신상해물탕	해산물	도천상가안길 18	055-646-1982
99	용남정어숯불구이	해산물	용남해안로 71-34	055-648-8700
100	울산다짜	해산물	미수해안로 157	055-645-1350
101	원조시락국	한식	중앙길 12-10	055-646-5973
102	천상	해산물	동호로 9	055-645-5661
103	통영바다횟집	해산물	도천상가안길 18	055-649-0920
104	통영생선구이	해산물	동달안길 84	055-646-6960
105	통영정원	한식	봉수로 50	055-644-8811
106	한산성식당	한식	정동4길 58	055-642-8021
하동				
107	해성식당	해산물	섬진강대로 1877	055-883-6635
함양				
108	정자나무민박	한식	의중길 32	055-962-5203

조선 왕조를 찾아가는 시간 여행

도심 고궁나들길

도심에 자리한 궁궐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수목원이며, 우리의 역사가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재다. 도심 고궁나들길은 서울의 5대 궁궐 중 세 곳과 종묘를 걷는 코스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에서 시작해 창덕궁과 그 후원인 비원을 거쳐 창경궁을 거닌 후,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걸기를 마무리한다. 파란만장한 궁궐의 역사와 종묘를 통한 조선의 건국 이념, 그리고 유교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다.

글. 사진 진우석

景福宮

칠조룡이 지키는 조선의 상징, 경복궁

출발에 앞서 광화문사거리에 자리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8층 옥상정원(황토마루정원)에 들르는 것이 순서다. 옥상에 오르면 시야가 넓게 열리면서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온다. 기품 넘치는 북악산과 수려한 인왕산이 경복궁을 따뜻하게 품고 있다. 경복궁의 자리는 가히 이 도시 최고의 명당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전격적으로 한양 천도를 결정했다. 이후 한양 어느 곳에 경복궁이 자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정도전, 하륜, 무학대사 등 풍수지리를 겸비한 당대 최고 학자와 승려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지금의 북악산 아래에 경복궁이 들어섰다. 그 결과 내사산(內四山)으로 주산 북악산, 좌청룡 낙산, 우백호 인왕산, 안산으로 남산을 배치했고, 그곳에 무려 18.6km 길이의 도성을 쌓았다. 조선 왕조는 경복궁과 한양도성을 건설하며 비로소 실체를 갖췄다.

광화문 앞에서 늠름한 해태상과 눈을 맞춘다. 해태는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상상 속의 동물’이고, ‘불을 다스리는 물의 신’이다. 광화문을 통해 경복궁 영역으로 들어선다. 흥례문을 지나면 조선 왕실의 상징인 근정전을 만난다. 1395(태조 4)년에 경복궁이 창건되면서 지어진 근정전은 역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이 열렸다. 근정전 앞에선 과거시험을 봤으며, 명나라 사신을 위해 불꽃놀이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근정전 내부를 보면 왕이 앉았던 옥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뒤편의 일월오악병은 옥좌의 위엄을 더해준다.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근정전 보개천장에 새겨진 황룡한 쌍이다. 근정전 황룡의 특이한 점은 발톱이 일곱 개인 칠조룡이라는 점이다. 황룡은 용 중의 으뜸이며, 칠조룡은 황룡 중에서도 가장 높은 품격을 자랑한다. 여기에 칠조룡을 넣은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복궁 재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경복궁은 선조 2년인 1592년 임진

왜란 발발로 전소돼 270여 년간 방치됐다. 이후 고종 4년인 1867년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창됐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중국의 권위에 벗어나고자 했다.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움

최근 서울의 궁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한복 패션이다. 학생들이 한복 매무새를 자랑하며 한껏 뽐내고 사진을 찍는 풍경은 참 곱다. 하늘하늘 한복을 입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궁궐과도 잘 어울린다. 외국 여행자들은 연신 기념사진을 사진을 찍으며 흐뭇해한다.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의 모습마저 궁궐다운 풍경이 된다.



0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8층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북악산. 북악산 뒤로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02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새겨 넣은 칠조룡.
03 한복을 입고 온 여중생들이 궁궐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04 최근에 개방한 송현 열린 녹지광장의 설치 미술 작품.

경회루는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주재하던 누각이다. 국내 누각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조선시대 왕들은 경회루를 둘러싼 사각형의 인공 연못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경회루는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준 아픈 현장이기도 하다. 경회루 옆의 향원정은 고종이 1873년 세운 건청궁의 전용 휴식처다. 왕과 그 가족들의 사적 휴식 공간이었던 탓에 분위기가 아늑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출입구로 경복궁을 나오면 최근에 개방한 송현 열린 녹지광장이 나온다. 이곳은 과거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다가 비로소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덕에 너른 땅을 배경으로 다양한 설치 미술을 즐길 수 있다.





이제 북촌으로 접어든다. 정독도서관과 재동초등학교를 지나 작은 언덕을 오른다. 언덕 아래로 창덕궁 건물들이 펼쳐진다.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북촌 팔경의 1경이다. 창덕궁은 1405(태종 5)년 완공된 이궁이지만, 경복궁보다 오랜 세월 정궁 역할을 했다. 경복궁이 복원이 너무 늦었던 탓이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은 현존하는 궁궐의 정문으로는 가장 오래됐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09년(광해군 원년)에 완공해 기특하게도 이때의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돈화문을 들어서 금천교를 건너니 인정전이다. 엄숙하고 고풍스러운 인정전의 모습에 감탄이 터져 나온다. 여기서 효종·현종·숙종·영조 등 조선 왕조 임금들이 즉위식을 거행하고 왕위에 올랐다. 창덕궁은 봄철 매화가 만개할 때 특히 아름답다. 연분홍 홍매화가 구름처럼 퍼먼 향기가 온 궁궐을 진동한다. 창덕궁 관람은 후원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시대 궁궐의 후원 가운데 가장 넓고 경치가 아름다워 일찍부터 왕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금은 누각

18채와 정자 22채가 남았다. 후원의 최고 덕목은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의 구름과 계곡에 최소한의 인공을 가해 가다듬고 여기에 어울리게 연못과 건물을 배치했다. 후원은 정조의 꿈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정조는 후원에 규장각을 세우고 여러 서고를 지어 왕실도서관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정치와 문화를 꿈꿨다. 후원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이 무렵 늦가을이다. 활엽수들은 저마다 단풍을 내뿜으며 후원을 붉게 물들인다.

건축과 자연의 조화, 종묘

후원을 나오면 창경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인다. 창경궁은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다. 창덕궁의 부족한 기능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궁궐로서 자리 잡았다. 창경궁이 결정적으로 훼손된 것은 일제가 창경궁의 전각을 헐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부터다. 1911년에는 궁궐의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꾸어 궁궐이 갖는 왕권과 왕실의 상징성을 격하시켰다. 창경궁은 해방 후 1970년대까지 줄곧 서울의 대표적 유원지로 이용되었다. 일명 ‘야사쿠라’라는 벚꽃 놀이터로 널리 알려졌다.

춘당지를 둘러본 후엔 작년에 개방된 궁궐담장길을 통해 종묘로 들어선다. 종묘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열면 반드시 종묘를 세운 다음 조상을 받드는 법이다. 이것은 자신의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것이니 후한 도리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종묘는 국가적인 제례를 올리며 왕권의 존엄성을 내외에 과시하고 왕조의 근간을 확립했던 최고의 사당 건축이다.

종묘는 숭고하면서도 엄숙하다.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과 박석이 깔린 광장은 보는 사람이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한다. 정전 맞배지붕 위로 참나무들의 우듬지가 보이는데, 마치 설치미술처럼 조화롭다.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이 이처럼 엄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종묘를 마지막으로 도심 궁나들길이 마무리된다.

05 창덕궁 후원은 늦가을 단풍이 유명하다.
06 궁궐과 담장 길 곳곳이 단풍 속에 묻힌다.
07 조선 왕조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인 종묘 정전.



도심 궁나들길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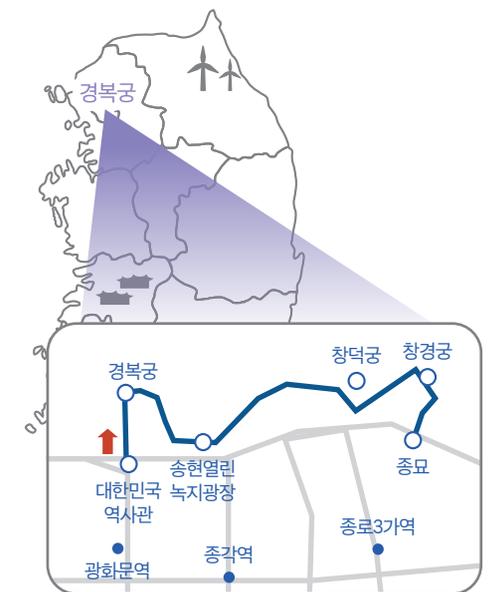
도심 궁나들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생태문화길 중 하나다. 코스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종묘 순으로 다니는데, 거리 8.6km, 3시간 30분쯤 걸린다. 세 개의 고궁과 종묘를 둘러보다 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자. 입장료는 4대궁 및 종묘 통합관람권(어른 1만 원, 구입일로부터 3개월 사용)을 이용하면 조금 저렴하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월요일, 경복궁과 종묘는 화요일은 휴무다.

교통

경복궁은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온다. 종묘는 종로3가역과 가깝다.

맛집

종묘에서 멀지 않은 ‘광장식당’에는 빈대떡과 육회를 파는 맛집이 즐비하다. 통큰누이네 육회빈대떡(02-2268-3344)은 저렴하고 푸짐해 인기가 좋다. 종묘의 왼쪽 골목인 서순라길에서 가까운 잘빠진메밀 익선점(070-4531-1214)은 막국수와 만두전골이 일품이다.



예술가의 숨결과 사색이 흐르는 길

프랑스 파리는 사색하며 걷기 좋다.
‘파리의 동맥’인 센강을 따라 예술가의 고뇌와 숨결이
함께 흐른다. 강변 다리와 골목, 빛바랜 카페에는
대가들의 사연이 녹아들어 있다.

글. 사진 서영진

프랑스 파리 센강

France Paris Seine River

카뮈, 랭보가 거닐던 산책로와 다리

누구나 파리에 들어서면 센강의 다리 위를 거닐며 상념에 젖는다. 많은 예술가가 오가던 다리나 골목에서 보내는 달콤한 휴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에서는 주인공 오웬 윌슨(길 역)이 센강을 산책하며 파리의 예술가들을 추억하는 장면이 나온다. 스크린 속 환영처럼 센강은 파리에 대한 기억의 매개이고 탐닉의 대상이다. 피카소, 사르트르, 카뮈, 랭보 등 술한 대가들이 도시와 강변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센강은 파리의 동서를 가로지르면서 유유히 흐른다. 강변으로는 걷기 좋은 길이 이어지고, 수십 개 교각이 미술관, 건축물, 공원을 연결한다. 좁은 강폭은 투박하지 않고 일상과 가깝게 소통한다. 센강에 연결된 파리의 길들은 폭에 따라 '뤼', '아브뉴', '불르바르'로 다채롭게 불린다.

센강변의 산책로와 다리에는 가슴 뛰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 카뮈, 사르트르, 랭보 등이 작품을 구상

하기 위해 즐겨 찾았던 다리는 폰데자르 다리다. 나무 바닥을 채운 폰데자르는 센강 교각 중 보행자를 위한 전용 다리로, '예술가의 다리'라는 별칭을 지녔다. 낮에는 사진 등 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밤이면 집시들의 뜨거운 노래가 흐른다.

시떼섬 초입의 폰네프 다리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영화 <폰네프의 연인들>의 소재가 됐다. 18세기 파리의 교각들은 다리 양쪽에 복층 가옥이 들어선 서민들의 삶터였다. 건물 없이 지어진 최초의 교각이 폰네프 다리다.

시떼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에 나왔고, 시떼섬에서 풍생루이를 건너 달을 수 있는 작은 섬 생 루이 섬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의 배경이었다.

시떼섬을 에둘러 연결되는 센강 길은 중세의 고풍스러운 건축물로 채워진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감옥인 콩시에르쥐르, 카미유 클로델의 가옥들을 스쳐 지나다.

대가들이 단골이었던 카페와 서점

이에나 다리 옆 에펠탑과 샹 드 마르스 공원은 아티스트들의 대형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다. 비라캥 다리는 2층 구조로, 메트로가 지나며 1층으로 사람들이 자동차가 오간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다리는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에서 주인공들의 첫 만남을 촬영했다. 강 서쪽의 미라보 다리에서 시인 아폴리레르는 연인 마리 로랑생과의 이별을 노래했다. 알마고는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슬픈 얘기를 담고 있다.

센강변의 오래된 서점이나 고서적 판매점 역시 강의 풍취를 더한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소설가 헤밍웨이와 피츠제럴드가 즐겨 찾던 서점으로, 영화 <비 포 섀넌>에 등장했다. 생 루이 섬 주변에 늘어난 길거리 노점 서점인 부키니스트들만 구경해도 퇴색한 강변은 충분히 빛난다.

아티스트의 사연들은 센강과 연결되는 거리와 골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생 제르망은 시떼섬



03



04

02 '예술가의 다리'로 통하는 폰데자르 다리.

03 센강변에 늘어난 엽서 가게.

04 헤밍웨이가 즐겨 찾던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

01 예술가의 숨결이 서린 센강 옆으로는 바토무슈 유람선이 여유롭게 오간다.



02

남쪽에서 콩코르드 광장까지 아우르는 지역으로, 파리와 센강을 향유하는 심장부와 같다. 파리의 많은 문인과 음악가가 인생을 논했던 카페들은 가을 별이 드는 큰 도로에 차곡차곡 늘어서 있다.

1686년 개장한 카페 '르 프로코프'는 루소, 볼테르 등이 거쳐 갔으며, 3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성업 중이다. 카페 '드 플로르'는 랭보, 사강, 앙드레 지드 등 프랑스의 작가와 화가가 작품과 인생을 논했던 문학 카페인데, 시간이 흘러 알랭 드롱, 카트린느 드뇌브, 조니 뎀, 알 파치노 등 영화 배우들이 즐겨 찾았다. 카페 '레 되 마고'는 카뮈와 피카소가 단골손님이었으며, 1880년대 문을 연 식당 '브라스리 랍'에서 헤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를 집필했다. 생 미셸 거리로 연결되는 소르본느 대학 정문 앞 카페는 사르트르와 그의 연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데이트 장소였다.



05

예술 흔적 잇는 상제리제, 몽마르트르

센강에서 콩코르드 광장, 상젤리제를 거쳐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길은 파리지앵이 즐기는 대표적인 조깅코스이자 산책 구간이다. 그 길에 루브르 박물관, 킬르히 가든, 엘리제궁 등이 두루 담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를 감상하려면 루브르 박물관을, 밀레의 <만종>이나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들>을 보려면 강 건너편 오르세 미술관을 선택하면 된다. 킬르히 가든을 산책하는 도중이라면 오랑주리 미술관이나 죄드폼 갤러리에 들러 명작을 음미할 수 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주인공은 산책과 작품 감상을 아우르며 옛 예술가들과 몽상속에서 조우한다.

상젤리제는 파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아한 산책로다. 불모지였던 땅은 17세기 '왕비의 산책로'를 조성하며 외관을 갖추기 시작했다. 플라타너스와 마로니에 나무가 심어졌고, 도로 한쪽으로는 공원이



06



07

05 파리 예술의 랜드마크인 루브르 박물관.
06 유희와 낭만의 공간인 몽마르트르 언덕.
07 아티스트들이 드나들던 생 제르망의 카페.

마련됐다. 상젤리제에 대통령궁 엘리제가 들어섰는데, '엘리제'는 신과 영웅이 죽은 뒤 가는 낙원, '상젤리제'는 엘리제의 뜰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낙원의 뜰은 밤이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룬다.

파리의 해질 무렵 야경은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더욱 찬란하다. 도심과 센강이 내려다 보이는 몽마르트르의 테르트르 광장에서 피카소, 위트릴로 등 화가들은 밤을 여흥 삼아 산책과 담소를 나눴다. 고흐가 머물며 작품 활동을 펼쳤던 동생 테오의 가옥 역시 언덕 위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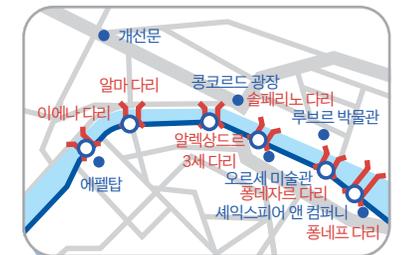
상제리제와 에펠탑, 몽마르트르는 매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새해맞이 명소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파리에서는 2024년 올림픽이 열린다. 센강으로 연결되는 우아하고 멋스러운 길들은 예술의 숨결 위에 군중들의 열기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파리 센강 길



파리를 동서로 관통하는 센강의 길이는 약 13km에 달한다. 베르시 공원이 있는 동쪽 툴비악 다리에서 서쪽 아발교까지 걷는데 3~4시간이 소요된다. 센강의 다리는 인도교 4개를 포함해 총 37개이며, 노트르담 성당의 시테섬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미라보 다리까지 명소를 품은 강변과 다리들만 거처도 훌쩍 2시간이 넘는다. 센강 옆으로는 보행자용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유람선 바토무슈를 타고 전체 강 산책로의 운곽을 살펴볼 수 있다.

센강 옆으로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길이 나란히 이어지며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소형 신호등이 마련돼 있다. 센강과 연결되는 생제르맹, 상제리제 거리를 구경하며 걸으려면 꼬박 하루를 할애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로수가 어우러진 강변 산책로이자 센강의 지류와 만나는 지점에 조성된 생 매트렝 운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가을이에요, 어느덧 가지산

두려움 없이,
청춘답게

1,000m 봉우리들이 연달아 솟은 영남알프스 능선에
서둘러 내려앉은 가을을 맞으러 IBK 양악회가 가지산에 들었다.
봉우리는 높아 고되었고, 바람은 시원하여 가을다웠다.

글 서승범 사진 영상 김경수 영상편집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 지 산



‘영남알프스’를 아시나요?

어디론가 떠나기에 딱 좋은 날씨가 있다. 조금 움직이면 몸이 쉽게 데워지고 열심히 움직이면 땀이 나지만 찌는 듯하지 않은, 그러다 문득 그늘에서 쉬면 땀이 식으면서 선선해지는. 짐작하다시피 봄과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다. 하지만 이 좋은 날씨는 귀해서 길지도, 잘못도 없다.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에 찾은 곳은 울주의 가지산이다. 이름은 낮고 부드러운 산 같지만 1,000m가 넘는다.

가지산행의 출발점으로 삼은 석남터널 앞의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 자전거로 석남개개를 오르려는 사람들, 모터사이클로 산중 국도를 유랑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 사이로 등장한 사내들. 대구와

안동에서 가지산에 오르기 위해 모인 IBK인들이다. 산행을 기획한 대구 성서3차단지점 양광열 대리,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이한솔 대리와 김재현 계장이 함께 왔다. 그리고 대구중앙지점 최정호 과장과 안동지점 김문수 대리는 양광열 대리의 동기들. 양광열 대리와 사수-부사수로 인연을 맺은 류지호 대리까지 모두 여섯 명. 이름하여 ‘양약회’다. 양약회는 짐작하다시피 ‘양광열 회장을 중심으로 한 산약회’라는 뜻이다. 가지산은 양약산약회의 첫 번째 산행이다. 석남터널 앞에서 ‘양약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산행을 해보자는 마음을 모았던 것인데, 이 다짐은 산행이 끝날 때까지 유효할 것인가.



01



02

- 01 산행에 앞서 안전을 위해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양약회 멤버들.
- 02 풍광이 좋은 곳에서 잠시 쉬어가며 기념사진 촬영을 빼먹지 않는다.
- 03 멋지게 쌓인 돌무더기 위에 돌멩이 하나 슬쩍 얹어본다.



03

안내도를 보며 코스를 소개하는 양광열 회장에게 누군가 물었다.

“이 코스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가을을 맞아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고 싶었는데, 초보자에게 적합한 코스를 찾았습니다. 왕복 두 시간 반 정도 걸린다 하니 세 시간 정도 생각하고 여유롭게 산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영남알프스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 영남알프스는 경상남도 울주와 청도, 밀양에 걸쳐 높이 솟은 산군을 가리킨다. 오늘 오를 1,241m의 가지산을 비롯해 운문산 1,188m, 천황산 1,189m, 재약산 1,119m, 신불산 1,159m, 영축산 1,081m, 고현산 1,034m, 간월산 1,069m 등 무려 여덟 산이 장관을 이룬다. 그 중에서도 가지산이 최고봉인데, 석남터널 코스는



04



05

가지산 정상에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니 고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물론 모두 풍경이 일품이니 어느 산을 골라도 후회는 없다. 간단하게 몸을 풀고 곧바로 산행 시작.

“젊은 사람들이 뭘 신대! 얼른 올라가”

산행의 들머리부터 가파른 데크 계단이 우리를 맞이한다. 그러나 산악회원들은 가뿐하게 오른다. 그 래 봐야 두 시간 반, 넉넉잡아 세 시간일 테니까. 가파르다는 건 정상에 그만큼 빨리 가까워진다는 뜻...이긴 한데 힘든 건 힘든 거다.

계단 끝이 보여 설렘이나 계단이 끝난 뒤에도 가파른 오르막은 이어졌다. 다행스럽게 길진 않아 이내 가지산 능선에 올라설 수 있었다. 잠시 내리막을 거쳐 안부를 지나니 완만한 오르막이 이어지다가 간이매점이 나타났다. 잠시 숨을 돌리고 출발하는데 저 앞에 우뚝한 봉우리가 눈에 들어온다. “정상이다!” 말이 조금씩 없어지며 늘어지던 텐션을 다시 올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꽤 가팔라 보이지만



06

- 04 힘든 오르막이 있으면 가쁜한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다.
- 05 가지산에서는 주변 산등성이와 마을 풍경이 어우러진 장관을 볼 수 있다.
- 06 온몸이 땀에 젖어도 잠깐의 휴식과 농담 한 마디면 웃음이 터진다.
- 07 멋진 가을 풍경을 놓칠 수 없어 카메라를 가지고 온 IBK인.
- 08 나무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오를 수 있었다.

정상이란 힘들게 올라야 하는 법이다. 곳곳에 로프가 달려 있을 정도로 가파른 암반 구간이 있다. 정상을 앞두고 기분이 좋아져 잠시 쉬며 길에서 마주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대단하세요! 정상까지 한 10분이면 될까요?”



07



08



09



11



12

“뭔 소리야. 저 봉우리 넘어서 한 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예? 저 봉우리가 가지산 정상 아니에요?”

“중봉! 가지산은 한참 더 가야 해. 젊은 사람들이 훨씬대. 얼른 올라가!”

우린 두 시간 가까이 올라왔는데..., 촬영을 하며 천천히 올랐다고 해도 저 봉우리가 가지산이어야 하는데... 확인 차 다른 팀에게도 물었으나 정상은 저 너머에 있는 걸로.

일단 눈앞의 봉우리부터 오르고 보자. 1,167m의 중봉이었다. 능선에서 마주친 시원한 가을바람에 땀을 식히며 사위를 둘러보는데 멀리 태극기가 휘날리는 봉우리가 보였다. ‘설마! 근데 저 봉우리가 가지산 같아.’ 그럼 가는 거다. 간식 먹고 정상을 향한다.

이른 오후에 산행을 시작해 남은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다. 그럼 좀 서두르지 뭐. 저만치 있던 봉우리



10

가파른 계단을 모두 오른 뒤에도 오르막이 이어졌다. 꽤 가팔라 보이지만 정상이란 힘들게 올라야 하는 법이다.

09 카메라를 보며 다 함께 “파이팅!”하고 외쳐본다.

10 혼자 오르기 힘들어도 괜찮다. 손을 잡아줄 동료가 있기 때문이다.

11 잠시 한 숨 돌리다가 만나는 야생화는 어쩐지 행운을 가져다 줄 것만 같다.

12 “이리 모여!” 자리가 좁아도 사진 한 장에 모두 담겨야 한다.

였지만 능선을 따라 바지런히 발걸음을 옮겼고 정확히 30분 후 우리는 가지산 정상석과 휘날리는 태극기를 볼 수 있었다.

단풍이나 설경이나

“산행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가을을 맞아 산행을 하면서 멋진 풍경도 보고 건강도 다지면 좋을 것 같아 양 대리 권유에 응했습니다.”

“두 시간 반으로 알고 오지 않았나요?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그렇게 알고 오긴 했는데 땀도 흘리고 풍경도 좋아서 좋습니다.”

“영혼은 어디에 두셨나요?”

막내 김재현 계장을 향한 형들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막내를 산행에 초대할 양광열 대리를 겨냥한 농담들이다. 김 계장과 함께 권유를 받은 이한솔 대리도 웃음을 참는 것이 힘들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다고 아우성이다가도 중봉에서 정상을 향한 듯, 짓궂게 농들이 오가도 다음 산행에도 보란 듯이 모일 멤버들이다. “괜히 왔어!” 엄살을 부리면서 말이다.

이름이 양악회지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이니 다른 활동을 할 계획도 있다. 산행 중에는 “산행 후엔 막걸리!”를 외쳤지만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는 체력을 다지기 위해 운동 모임을 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다 등산은 체력도 다지고 좋은 풍경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둘 중 하나다. 단풍이나, 설경이나.

가지산 정상석에는 ‘낙동정맥 가지산 1,241m’라고 새겨져 있다. 낙동정맥은 낙동강 동쪽에 위치한 산줄기란 뜻이다. 백두대간 산줄기에서 뿔어 나온 산줄기로 태백 구봉산에서 여기 가지산을 거쳐 부산 물운대까지 이어진다. 기나긴 백두대간과 낙동정맥도 높이 솟은 봉우리와 보드랍게 패인 고갯마루가 번갈아 이어지듯, 산악회라고 늘 산에만 올라야 하는 건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찾고 싶을 때 찾으면 충분하다.

단풍에 젖고 설경에 빠지기 위해 오르다 보면 이름 모를 야생화가 궁금해지고 고갯마루의 바람이 그리워지는 법, ‘양악회’란 이름에 담은 다짐은 아직 유효하다.



13 가지산의 가을 절경.
 14 정상에 도착했다면 인증샷을 빼먹을 수 없다.
 15 가져온 쓰레기도 빼먹지 않고 행거가는 환경지킴이들.

가지산 INFO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 입산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코스 석남터널 입구 - 석남고개 - 중봉 - 가지산 정상(3km)
- 문의 가지산도립공원(밀양) 055-356-1915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GO~!! 멍멍~!!

반려견 어질리티 체험

부모님 외에 아무 이유 없이 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나 몰으면 가장 먼저 반려견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반려견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IBK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글 엄세권 사진 김성재 영상 박찬혁, 김두기 영상편집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된 너와 나



Dog Agility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순수 견종 보전을 위한 혈통 관리, 반려견 보호자 의식 강화, 어질리티-디스크독 등 도그스포츠 도입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펼쳐온 비영리단체입니다.

널 좋아하는 데 이유는 없어

“사람한테 받는 위로와 그들한테 받는 위로는 달라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좋아하죠.”

우리나라의 애견문화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백이면 백 동물훈련사 강형욱을 언급할 것이다. 그는 “애견훈련은 강아지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뒤집어 놓은 한마디다. 오늘의 어질리티 체험도 바로 주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일요일 늦은 오후. 각자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4명의 IBK인이 반려견 훈련장에 모였다. 이날의 훈련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가 함께했다. 또 훈련 장소는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어린이회관 서편에 자리한 반려견 운동장으로, 한국애견협회가 관리한다.

“반려견 어질리티는 주어진 시간 안에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입니다. 등급에 따라 장애물이 추가되며, 체급별로 장애물의 높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먼저 실습을 해볼까요?”

체험의 가장 첫 번째는 허들 넘기다. 가장 먼저 8살의 보더콜리 물리가 멋지게 시범을 보였다. 강사님이 허들을 가리키며 “Go!”라고 외치자 물리는 높이 점프해 허들을 뛰어넘었고, 빠르게 터널을 통과해 코스를 완주했다. 이제 오늘의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이 체험해볼 시간. 오늘 참가한 반려견들은 손바닥만 한 아이부터 팔뚝만 한 아이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소형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사는 허들을 가장 낮게 설치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실습. 강형욱의 말처럼 훈련은 강아지가 아니라 주인을 훈

련시키는 것이었다. 강사는 반려견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반려견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너와 나 함께라면 우린 최고야

“퍼피! Go!”

이화경 대리의 반려견인 퍼피가 멋지게 허들을 넘었다. 강사에게 교육받은 대로 참가자들은 왼손에 간식을 들고 반려견에게 냄새를 맡아보게 한 후 허들을 지나갔다. 그러자 반려견들은 간식을 따라





자연스럽게 허들을 넘었다. 허들을 모두 넘고 나면 간식을 주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래야 반려견들이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호야 이리와~!” 유달리 힘이 넘치는 호야는 운동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허들 앞에 세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미정 계장은 계속해서 호야를 불렀는데, 어쩐지 호야가 일부러 못 들은 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일단 허들 앞에 서면 제일 높게 뛰어올랐다. 그래서 호야가 허들을 넘을 때면 참가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다음은 가장 어린 미니비숌 까공이 차례. 워낙 작고 조용해 그저 숨뭉치 같은 아이다. 정예진 계장이 간식을 들고 허들을 넘자 까공이는 첫걸음마를 떼듯 한 발씩 허들을 넘었다. 생김새처럼 하는 짓도 귀여워서일까. 참가자들의 얼굴에 ‘아빠미소’가 번졌다. 가족은 역시 닮는 걸까? 정예진 계장도 까공이도

차분하고 조용조용했다. 다음은 터널 훈련이다. 곡선의 터널을 지나는 훈련으로, 터널 출구 쪽에서 간식을 들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터널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훈련이다. “상식이 이리와!” 상식이가 터널 건너편에서 간식을 들고 있는 연습기 계장을 찾지 못하자, 연습기 계장은 옆드려서 터널 속으로 상체를 넣고 상식이를 불렀다. 그녀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상식이는 금세 터널에 적응해 멋지게 통과했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노을이 질 때까지 초록빛 잔디밭에서 열심히 뒹굴고 훈련을 했다. 아직 능숙하진 않아도 열심히 장애물을 뛰어넘다 보니 어느새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것 같다. 어질리티 대회에 참가하진 않더라도 내가 말하고 네가 들어준다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다.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상식이가 평소에 공놀이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어질리티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식이와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상식이
푸들 7살 ♂



가산디지털중앙지점 연습기 계장

우리 까공이가 아직 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잘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간식 2배로 줘야 할 것 같아요!

까공이
미니비숌
13개월 ♀



호계동지점 정예진 계장

생각보다 호야가 잘 따라줘서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야외에 많이 데리고 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계기로 호야가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들었어요.

호야
비유 2살 ♂



인사부 박미정 계장

어렸을 땐 이런저런 개인기 훈련도 많이 시켰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체험에 생각보다 잘 참여해주고 마워요!

퍼퍼
믹스 9살 ♀



안산중앙지점 이화경 대리

매력적인 나를 위해

고유한 색을 찾는 시간

과거에는 유행하는 베스트 컬러로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고 활용하는 '퍼스널 컬러' 시대다. 퍼스널 컬러를 알면 의상이나 화장품, 액세서리 등에 적용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일곡지점과 송탄지점 직원들이 아름답고 멋진 변화를 예고했다.

글 한울 사진 김경수, 이대원



퍼스널 컬러로 개성을 찾는 시대

요즘 신조어 중 ‘톤그로’라는 말이 있다. 톤그로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컬러의 화장품을 사용해 어색하다’는 의미다. 톤그로 탈출을 위해서 퍼스컬 컬러는 찾는 일이 트렌드가 됐고,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본인과 어울리는 색을 고르려는 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퍼스널 컬러는 사람의 피부, 눈동자, 머리카락 색 등에 가장 어울리거나 생기를 불어넣는 색을 말한다. 즉, 개개인에 맞게 조화롭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컬러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색과 대상물의 색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관련인 셈이다. 기존에는 연예인, 정치인 등 사람 앞에서는 직업군이 이미지 메이킹이란 이름으로 컨설팅을 받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반인도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다.

퍼스널 컬러는 사계절을 활용하여 봄과 가을은 워톤, 여름과 겨울은 쿨톤으로 분류한다. 쿨톤은 차가운 느낌의 색이고 워톤은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의 색이다. 이 밖에도 퍼스널 컬러는 온도, 채도, 탁도, 명도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탄생한 컬러 타입을 동양권에서는 봄 라이트 & 브라이트, 여름 라이트 & 브라이트 & 뮤트, 가을 뮤트 & 딥, 겨울 브라이트 & 딥의 아홉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퍼스널 컬러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통해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이미지로 연출하여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도 갖게 된다. 나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나를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컬러

두근두근 설렘으로 꽉 찬 일곡지점. 지점 한쪽에는 색색의 천들이 자리를 잡았고 거울과 메이크업에 필요한 재료들이 그 옆에 나란히 놓였다. 업무를 마친 직원들이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면서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매사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고마워 선물 같은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말하는 강정우 팀장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나와 동료들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일지 일곡지점 직원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첫 번째 진단자인 김문수 과장이 거울 앞에 앉아 수줍게 웃었다. 강사가 흰색과 베이지색 천을 얼굴 아래 대보며 워톤인지, 쿨톤인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타입의 드레이프 천

을 넘기면서 얼굴색에 어울리는 컬러를 관찰했다. 신기하게도 천의 색상에 따라 얼굴색이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형광등을 켜 것처럼 화사해지기도 했다. 색상에 따라 눈 밑의 그늘이나 얼굴의 잡티가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김문수 과장은 채도가 높은 색상보다 높은 명도의 컬러가 잘 어울리는 ‘썸머 라이트’로 나왔다. 다크 브라운 컬러의 머리카락 색과 하얀 피부를 가진 문윤희 대리의 진단이 이어졌다. 문윤희 대리는 ‘가을 소프트’로 나왔다. 강사는 “부드럽고 차분한 가을 소프트는 짙은 컬러, 진한 메이크업, 화려한 스타일링을 지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진단이 이어졌다. 진단 결과, 그동안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옷을 주로 입



있던 직원들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남자 직원들의 경우에는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 양복색을 추천받았고, 여성 직원들은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 립스틱을 발라 보며 얼굴빛이 달라지는 미묘한 차이를 느꼈다. 직원들은 “옷장 속 옷들을 대방출할 시간이 온 것 같다”며 입을 모았다. 사람의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첫인상이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일곡지점 직원들은 “앞으로 고객에게 더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컬러를 통해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시간

송탄지점 방재연 차장, 이지예 과장, 신경아·장문보·김리아·이명옥 대리가 테이블을 앞에 두고 둘러앉았다. 장문보 대리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기 위해 메이크업은 최대한 지운 상황이라 썩스럽네요!”

라고 하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강사가 진단을 위해 재료들을 준비하는 사이 쉴 새 없이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다. 송탄지점으로 발령을 받은 지 두 달째라는 방재연 차장이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송탄지점은 외국인과 어르신 고객이 많아서 단순 업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업무를 해요. 그리고 힘든 일은 서로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 챙기고 아끼는 모습이 정말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끈끈한 동료애가 있기에 일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멋진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는데, 선정이 돼 정말 기쁩니다.” 방재연 차장의 말에 동료들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서로를 마주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에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장문보 대리를 선두로 진단이 이어졌다. 정확한 진

단을 위해 머리에 하얀색 스카프를 둘러 앞머리를 최대한 없애고 드레이프 천을 대보며 얼굴색의 변화를 살폈다. 직원들은 천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어울린다’, ‘얼굴이 칙칙해졌다’, ‘잡티가 눈에 띈다’ 등 각자의 생각을 전하며 진단에 몰두했다. 장문보 대리는 차분하고 은은한 ‘가을 소프트’로 나왔다. 강사의 설명과 함께 다른 직원들의 진단이 이어졌다. 평소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방재연 차장은 ‘여름 소프트’가 나왔고, 이명옥 대리는 ‘여름 트루’를 결과로 받았다. 이지예 과장과 신경아 대리는 ‘가을 트루’, 김리아 대리는 ‘봄 라이트’로 진단되었다. 직원들은 “결과가 조금씩은 겹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마다 달라서 놀랐다”며 소감을 전했다. 진단이 모두 끝난 후에는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 액세서리와 메이크업 색상을 추천받았는데, 덕분에 설렘이 한껏 고조되었다. 송탄지점 직원들은 “더욱 젊고 생기 넘치는 지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힘찬 각오를 전했다.



IBK핸드메이드 참여 후기

평소에도 일곡지점 직원들의 스타일이 남다른데,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아름답고 더욱 멋스러워질 거라 기대됩니다. 우리 지점이 앞으로 더 화사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모용석
지점장

한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퍼스널 컬러 진단에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진단을 받으면서 직원들을 좀 더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강정우
팀장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확신했습니다. 잘 모르지 않았던 핑크 계열 컬러의 립스틱을 발라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은 변신을 한 것 같아요.



김미연
팀장

대학 시절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가을 워밍' 진단을 받았었어요. 오늘은 '봄 라이트'가 나와서 좀 신기했어요. 진단 결과가 기존에 제가 입던 옷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 기회에 옷장을 한번 정리할 생각입니다.



최영민
대리

퍼스널 컬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해보니 의상을 구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단 결과에 맞춰 확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정명환
대리

지금까지 워밍으로 알고 있었는데, 쿨톤으로 나왔어요. 진단 결과에 맞는 립스틱부터 하나 장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상도 화사한 컬러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옷장 속 의상 컬러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옥
매니저

직원들과 색다른 시간을 갖게 돼 기억에 많이 남을 듯합니다. 감사님의 질문에 제가 정답을 맞춰서 직접 매장에 가서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할 생각인데,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강일구
팀장

평소 가을 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진단 결과 '여름 라이트'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컬러에 따라 얼굴색이 달라지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퍼스널 컬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김문수
과장

퍼스널 컬러 진단을 꼭 받아보고 싶었는데, 동료들과 함께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진단 결과 제가 늘 손이 가던 화이트나 베이지 등 밝은 색상이 저와 잘 어울린다는 얘길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민지
대리

'여름 소프트'로 나왔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한 편이라 워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름 소프트'가 나와서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맞는 컬러를 찾았으니 앞으로 옷을 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원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방재연
차장

6년 전에는 '가을 소프트'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을 트루'가 나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지도 바뀌었을 텐데, 그에 맞게 새롭게 컨설팅할 수 있게 돼 좋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지에
과장

평소 블랙 컬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진단 결과 베이지나 카키색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나왔어요. 액세서리는 샴페인 골드를 추천받았는데, 잘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문보
대리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통해 저를 새롭게 알게 됐어요. '가을 워밍'으로 진단받았는데, 평소 선호하는 컬러가 저에게 잘 어울린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옷이나 액세서리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었어요.



문윤희
대리

평소 베이지 컬러나 파스텔 톤을 좋아했는데, 진한 컬러가 어울린다고 나왔어요. 좋아하는 컬러와 어울리는 컬러가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앞으로는 '봄 라이트'라는 진단 결과에 맞는 컬러를 고려해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할 생각입니다.



황주희
대리

'여름 소프트'가 나왔어요. 그레이가 살짝 들어간 컬러가 저와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그레이 톤의 의상을 잘 입는 편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옷을 좀 사서 시도해봐야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나이대
과장

퍼스널 컬러 진단을 처음 받아봤는데,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저만의 색을 찾은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요. 저는 '여름 트루'로 나왔어요. 저와 맞는 컬러를 찾았으니 앞으로 의상과 메이크업에 더욱 신경을 써서 화사하게 보일 생각입니다.



이명옥
대리

제가 무채색을 좋아하는데 저와 맞지 않는다고 해요. 베이지 계열 등의 밝은색과 샴페인 골드 컬러의 액세서리가 잘 어울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이 다르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신경아
대리

밝은 색이 어울리는 '봄 라이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품과 옷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두운 색을 주로 입었거든요. 컬러 진단을 통해 저는 물론 선배님들까지 좀 더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리아
대리

탁월한 정보 편집자

정약용



18년의 유배 기간 중 500여 권을 집필한 정약용은 '걸어 다니는 출판사'였다. 방대한 정보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했으며, 특히 조정의 신하로 일할 땐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정조대왕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엑셀'화했던 정리의 귀재였다.

글 편집실 **윌리스트** 유남영 **참고** 인사이드, 세계일보, 제주도민일보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 머무는 18년간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을 지은 대학자다.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한 토목공학자이며, 축성 당시 지레와 도르래, 녹로의 원리를 연구해 거중기를 고안한 기계공학자, 시인 겸 문예비평가, 홍역을 다룬 의학서 <마과회통>을 편찬한 의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집필 분야는 행정, 교육, 역사, 법, 경전 등 요점으로 치면 '전방위 인문학자'인 셈이다. 더욱이 유배를 간 상황에서 참고할 서적이 턱없을 리 없고, 다른 학자들과 교류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거둔 성과는 경이로움을 넘어선다. 임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암행어사와 곡산도호부사, 형조참의 등 벼슬을 지내면서 다녀온 여러 곳의 풍속과 정취, 사회 제도의 모순을 시문과 기록으로 남겼는데, 오늘날 조선 후기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학문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약용은 방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집대성'이란 장기를 발휘해 실학을 완성했다. 늘 책을 가까이했는데, 깊고 꼼꼼히 내용을 따져 읽는 '정독'과 독서 중 깨닫거나 생각한 것을 재빨리 적어 두는 '질서', 중요한 구절을 받아 적는 '초서' 등의 독서법은 그의 자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리와 기록에 관한 일화는 더 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현릉원 식목 사업을 마무리한 뒤 신하들에게 심은 나무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고을이 많이 심었는지를 물었는데, 신하 무리 중 누구도 답하는 이가 없었다. 결국 정조는 정약용을 시켜 사후 보고서를 쓰게 했다. 정약용은 이 작업의 핵심 가치를 '나무는 몇 그루인지', '어느 고을이 가장 많이 심었는지'로 파악했다. 고을을 작은 단위로 나눈 후 표가 그려진 종이를 내주며 세로 칸엔 날짜, 가로 칸엔 나무 종류를 적게 했다. 이를 1년 단위로 집계했더니 2~3일 만에 한 장의 표로 정리됐다. 정약용은 각 고을에서 모인 공문들을 한 장의 표로 압축해 정조에게 보고했고, 정조는 "책 한 권 이내로 정리하라 했더니 종이 한 장으로 정리했구나. 기특하다"고 칭찬했다.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은 핵심을 파악하는 힘이 되었고, 자신이 배운 공부를 통해 다른 분야와 접목하는 공학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정약용이 몸소 보여준 집대성의 근본은 정리하고 메모하기를 꾸준히 하는 데 있다.



긴긴밤도 청량하게 하이볼 레시피



HIGHBALL RECIPE

가벼운 파티부터 집들이 모임까지, 가볍게 즐기는 자리를 한층 달콤하게,
가볍게 채워줄 마력의 하이볼 레시피를 모았다.

글 편집실

알면 더 맛있어지는 하이볼 비법 4가지

술잔



하이볼은 술과 탄산의 비율, 용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가 닿는 면적을 줄여 탄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좁고 긴 잔을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얇은 크리스털 유리잔은 기포가 올라가는 것을 감상할 수 있을 뿐 더러 입에 닿는 감촉이 뛰어나다. 용량은 300ml 전후가 알맞고, 시중엔 270~330ml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얼음



단단하지 않거나 작은 얼음을 쓰면 음료를 만드는 도중 녹아버려 자칫 하이볼이 멍멍해진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파는 '돌얼음'을 사용해보자. 하이볼은 물론 '위스키 온 더 락'으로 즐길 때도 투명하고, 조밀하며, 불순물 없는 얼음이 좋다.

위스키



자신에게 맞는 베이스 위스키를 찾으려면 니트(neat, 상온에 있던 술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것)로 맛과 향을 음미한 다음, 술잔에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다시금 맛과 향을 느껴본다. 그 후, 온 더 락(얼음 2~3개를 넣고 그 위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것)으로 마셔보자. 이 과정을 거쳐 위스키에 만족했다면 하이볼로 즐기기에 충분한 베이스를 찾은 셈이다.

탄산수



하이볼의 '타격감'을 결정하는 탄산은 시판용의 경우 2.0~3.5 정도의 CO₂ 레벨이다. 하이볼 재료로 인기 좋은 '싱하 소다'는 3.0~3.5로, 시중 탄산수 중 가장 높은 CO₂ 레벨이다. 참고로, 탄산수를 잔에 따랐을 때 기포가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좋은 상태이며, 샴페인처럼 얇은 기포나 잔 방울이 핀다면 하이볼용으로 적절치 않다.



알아 두면 쓸데 있는 하이볼 사전

#하이볼

도수 높은 증류주에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은 음료를 섞어 만든 것을 통칭한다. 위스키, 보드카, 진, 테킬라 등 증류주에 탄산수, 토닉워터, 진저에일 등을 섞으면 하이볼이 된다. 진토닉(진+토닉워터), 잭콕(잭다니엘+콜라) 또한 하이볼의 일종이다.

#베이스

가성비 좋은 위스키로는 제임슨, 에반릴 리엄스 등이 있고, 한 단계 위에는 몽키숄더, 조니워커 블랙라벨, 와일드터키를 추천한다.

#탄산수 보관법

탄산수는 온도가 높아지면 CO₂가 약해진다. 콜라, 사이다가 그렇듯 상온에 오래 둔 탄산수 역시 김이 빠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야 한다.

#주류 쇼핑 앱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외에 바텐더나 주류점에서 추천하는 앱이자 온라인 구매처로 데일리샷(dailyshot.co), 달리(www.daligo.co.kr) 등이 있다.

#가니시

주로 레몬, 라임 등을 웨지 모양이나 슬라이스 형태로 만들어 쓴다. 과육은 벗기고 껍질을 짜 사용하는 레몬필, 라임필도 있다. 레몬즙, 레몬주스로 대체 가능하다.

소주잔으로 계량하는 하이볼 간단 레시피

HIGHBALL RECIPE

바닐라 플로트 1☐+1/8☉+1☒+1☉

- 1) 얼음 채운 잔에 버번 위스키 30ml(소주잔 1잔 용량은 약 50ml로 덜 채우는 것이 요령)+레몬주스 5ml를 채운다.
- 2) 시계 방향으로 13.5회 젓는다.
- 3) 콜라를 붓되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채운다.
- 4) 아이스크림 한 스푼을 잔에 올린다.
- 5) 빨대로 음료를 맛본 후 아이스크림과 섞어 마신다.

오렌지 보드카 하이볼 1☐+1/2☉+1/3☉+3☒

- 1) 얼음 채운 잔에 레몬주스 1/2잔+꿀 1/3잔+오렌지 보드카 1잔을 섞는다.
- 2) 탄산수 3잔을 넣고 마무리한다.

파이어볼 하이볼 1☐+1☉+3☒

- 1) 얼음 채운 잔에 레몬을 짜 넣는다.
- 2) 시나몬향의 파이어볼 1잔+탄산수(또는 토티워터) 3잔을 붓는다.

* 파이어볼은 탄산수보다 진저에일과 궁합이 좋다.

* 달달한 토티워터를 쓰면 단맛이 강해지고 술맛은 덜 느껴지므로 굳이 비싼 위스키를 쓰지 않아도 된다. 토티워터를 쓸 때 베이스 술로 럼, 보드카, 베르무트, 테킬라가 잘 어울린다.

얼그레이 하이볼 1☐+1/3☉+3☒+☉

- 1) 얼음 채운 잔에 레몬을 짜 넣는다.
- 2) 위스키 1잔+얼그레이시럽 1/3잔+토티워너 3잔 넣으면 완성.

* 홍차 토티워너(3잔)로 대체 가능.

와일드터키 라이 하이볼 1☐+3☉

- 1) 얼음 채운 잔을 준비한다.
 - 2) 와일드터키 라이 1잔+진저에일 3잔 넣으면 완성.
- * 이 조합이 달다면 위스키+진저에일+탄산수(1잔)로 변주해보자.

진저비어 하이볼 1☐+3☉

- 1) 얼음 채운 잔을 준비한다.
- 2) 와일드터키 라이 등 스모키한 위스키 1잔+진저비어 3잔을 넣어 마무리.

* 다크럼+진저비어, 테킬라+진저비어, 버번 위스키+진저비어 조합 또한 훌륭하다.

화요 하이볼 1☐+3☉+☉

- 1) 얼음 채운 잔을 준비한다.
 - 2) 화요41 1잔+진저비어 4잔+라임을 차례로 넣는다.
- * 화요41 대신 진으로 대체 가능.

제임슨소다앤라임 1.5☐+☒

- 1) 얼음 채운 잔에 라임을 짜 넣는다.
- 2) 제임슨 1.5잔을 넣고, 사이다로 나머지를 채운다.

‘원샷’ 하이볼 1/3☐+☒

- 1) 샷잔에 테킬라를 1/3 정도 채운다.
- 2) 사이다로 남은 잔을 채운다.
- 3) 테이블에 수건을 펴 놓고, 잔 위를 냅킨으로 덮는다. 바닥을 ‘탕’ 내리친 후 바로 원샷!

데미소다 하이볼 1☐+3☒

- 1) 얼음 채운 잔을 준비한다.
- 2) 조니워커 블랙라벨 1잔+데미소다 사과맛 3잔을 붓는다.

* 베이스 술은 파이어볼, 블랙바틀로 대체 가능.

토끼소주 하이볼 1☐+☉

- 1) 얼음 채운 잔을 준비한다.
- 2) 토끼소주골드 1잔+진저에일을 가득 채워 마무리.

‘빛’나는 하이볼 ☉+1.5☐+3☒

- 1) 얼음 채운 잔에 레몬을 짜 넣는다.
 - 2) 빛32 오크 1.5잔+토티워터 3잔 부으면 완성.
- * 토티워터 대신 진저에일로 대체 가능.

막걸리 하이볼 ☉+1☐+3☒

- 1) 얼음 채운 잔에 레몬 가니시를 넣는다.
 - 2) 막걸리 1잔+토티워터 3잔을 붓는다.
- * 막걸리는 하루 이상 냉장 보관해 탁주가 가라앉은 상태가 좋다.



- | | |
|---------|---------|
| 베이스 술 ☐ | 꿀 ☉ |
| 탄산수 ☐ | 얼그레이 ☉ |
| 레몬 ☉ | 아이스크림 ☉ |
| 오렌지 ☉ | 진저비어 ☉ |
| 라임 ☉ | 진저에일 ☉ |

베트남의 금융 베테랑

하노이지점

2013년 11월 6일 개점 이후 10년이 흘렀다. 하노이지점은 2023년 11월 현재 베트남 북부지역 내 1,700여 개 기업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 상담부터 공장 건립과 사업장 운영 자금 등 물심양면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통합 금융 서비스를 한결같이 제공해왔다. 베트남의 금융 베테랑들, 하노이지점이 전하는 지난 10년과 미래 10년을 잇는 생생한 이야기.

글 편집실 사진 영상 IBK기업은행 하노이지점 제공 영상편집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하노이지점

하노이지점의 미션, 베트남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금융기관

질주하는 경제 성장률, 높은 젊은 세대 비중, 스마트폰 보급 급성장, 활발한 금융 소비 등의 요인을 갖춘 베트남은 오늘날 디지털 금융 시대 속 잠재력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 흐름을 타고 IBK 기업은행은 2017년 베트남 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참고로,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는 은행 산업 개편안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 인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 고위급 회담이 이어졌고, 베트남 중앙은행을 비롯한 총리실, 대사관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며, 법인인가 승인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하노이지점은 지금,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할 중차대한 미션, IBK베트남법인 인가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현재(2023년 8월 말 기준) 13개국에 60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법인을 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3곳이다. 한국의 중소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나 지역이라면 해외 네트워크가 구축된 기업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필요성 역시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2013년 11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 개점한 IBK기업은행 하노이지점이 올해 11월 개점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세월 쌓아온 하노이지점의 금융 노하우는 법인 전환에 대비, 다양한 고객군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Professional



Finance





하노이지점 개설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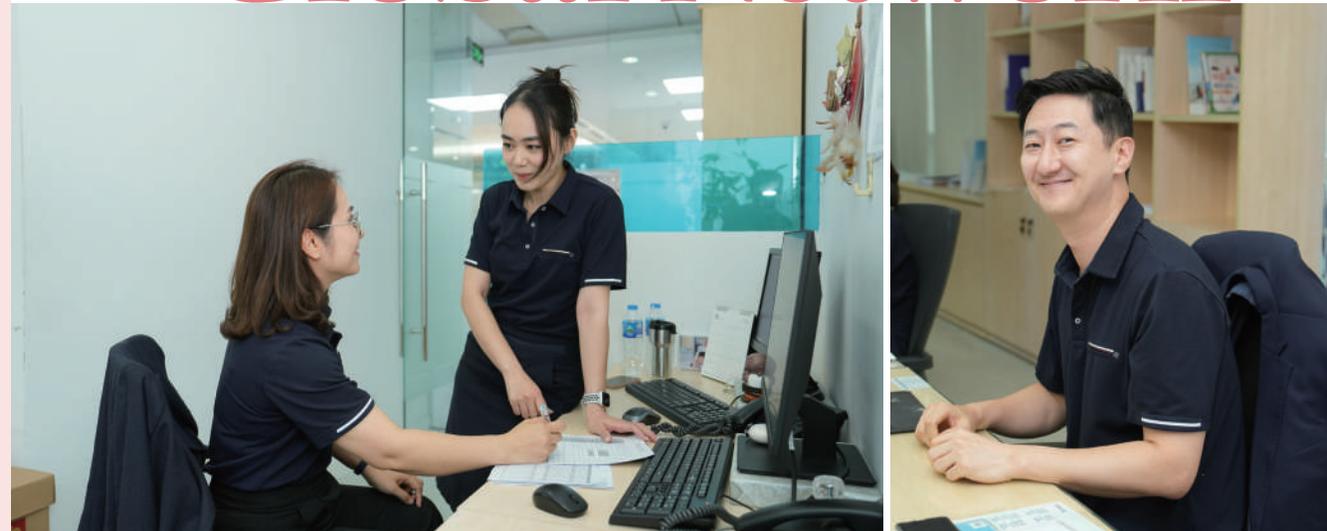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성과로

하노이지점은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크론 지원 등 IBK기업은행의 선진화된 중기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베트남 현지 태양광 발전 지원, 산업단지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SOC산업 분야 지원에 나섰다 뿐 아니라 개인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업과 개인 고객에 맞춰 다각도로 베트남 현지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베트남 현지 시장을 겨냥해 모바일 뱅킹 비대면 계좌 개설, QR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사회공헌서비스(CSR) 차원에서는 낙후 지역 교육·수도 시설 개선, IT정보화 교육실 조성·중고 컴퓨터 기부, 저소득층 학생 대상 학용품과 장학금 지원, 화재 등 재난 피해 가정 지원 등 폭넓고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베트남 현지 친화적이면서 우호적인 IBK기업은행의 이미지를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개점 10주년을 맞은 올해 하노이지점은 더욱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 9월 말, 총전이익 1600만 불을 시현해 해외영업점 중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연말, 개점 이래 최초로 연간 2000만 불 이상 달성이란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법인설립 대비 현지화를 위한 베트남 로컬기업 여신 확대 또한 소중한 결실을 맺었는데, 2023년 베트남 현지 Big4 은행과 여신업무 협약 체결에 이어 베트남 로컬기업 여신 4000만 불을 증대했다. 현지 통화 예금 담보 인정비율 상향, 시설자금대출 여신기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로컬기업 섭외를 강화하고 거래 규모를 확대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지난해 11월 IBK기업은행 최초로 베트남 현지 PF사업(태양광발전, 420만 불)에 자금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올해 5월 추가로 태양광발전사업(320만 불)에 지원을 추가하며 글로벌 IB 자산을 확대했다.

Global Network



**베트남 금융권의
'믿고 보는' 파트너로**

베트남 면적은 한반도의 1.5배로,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1,700여 개 거래기업이 베트남 북부지역 각지에 분포한다. 하노이지점은 하노이 내 한인 거주 비중이 높은 미딩 지역에 있고,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Landmark72 빌딩에 위치해 찾기도 설명하기도 쉽다. 하노이지점은 IBK기업은행에 속한 하나의 지점에 그치지 않고, '작은 IBK기업은행'을 표방하며, 여·수신·외환 업무와 제도 및 상품 기획, 준법, HR, 자금,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동시 수행한다. 시내에 단 1곳인 입지 특성상 1,700여 개 기업고객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을 터. 하노이지점은 4개 권역으로 지역을 분류, 전담 RM을 지정해 1개 지점에서 4개

영업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RM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고객 밀착 관리로, 취약한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담당RM은 SNS로 고객과 실시간 신속 소통한다. 또 베트남 규정상 현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진출 국내 기업을 위해 IBK기업은행 타 해외영업점을 통해 역외 대출(2023년 중 2600만 불)도 지원했다. 하노이지점의 고유한 조직 문화를 다지는 데도 10년의 노하우가 녹아 있다. 베트남 직원들을 위해 한국어 학습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직원의 23%가 수강 중이다. 이미 4명의 현지 직원은 한국어 자격증(TOPIK) 고급 수준인 5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2주마다 전 직원 대상, 여·수신·외환 담당

책임자 주최로 업무 강의를 진행하고, 연수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 시 지원금 지급 같은 방식으로 자기개발을 유도해 시너지를 낸다. 10년 차 하노이지점에겐 매년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다. 장차 베트남 법인 전환으로 현지의 중기 금융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려는 당찬 포부와 함께 명실공히 '중소기업 전문 은행'으로 우뚝 설 베트남 금융 베테랑들, 그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10년을 눈여겨보자.

Trusted Partner



Mini Interview



하노이지점
박경일 지점장

하노이지점의 사명,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지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객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점입니다. 고객이 계신 곳, 하노이 북부지역뿐 아니라 다낭 등 중부까지, 어디든 찾아가 해결 방안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점 10주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개점 후 10년간 1,700여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총자산 5억 불 규모의 지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노이지점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글로벌 자금시장그룹을 비롯한 본점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하노이지점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 상품을 통해 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전수하는 동시에 현지화를 통해 IBK기업은행의 위상을 제고하고,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견고히 성장시켜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할 겁니다.

하노이지점 직원들이 말하는

나만의 감정 정리
해소법은

□□□□□ (이)다

박경일 지점장



차한잔여유

고장현 선임차장 (팀장)



맛집패내기

고영호 차장



분재한그릇

이주현 차장



생각비우기

안형철 차장



백시우 (연휴와제) 한잔

김보람 차장



무작정걸기

이찬준 차장



알코올섭취

김재훈 차장



과자사먹기

김성재 차장



잘씻고잔다

Doan Thi Nga



커피와음악

Pham Thi Hoai



나무속걸기

Ha Minh Nguyet



가족과식사

Le Thi Thuy Ngoc



친구와수다

Ngo Thuy Duong



쇼핑과TV

Pham Thuy Linh



액션영화볼

Nghiem Thu Thao



무작정여행

Nguyen Thi Thanh
Huong



고양이안기

Truong Duc Hung



쇼핑과TV

Quach Phu Thai



생각비우기

Vu Huy Nghia



친구와오락

Duong Bao Ha



한국드라마

Kieu Trang Ngan



아이와요리

Nguyen Thi Hai
Yen



쇼핑과음악

Tran Thu Thao



노래부르기

Pham Thi Thanh
Ha



친구와TV

Nguyen Ngoc Ly



팔뚝만들기

Cao Hoang Duc



스포츠계요

Vu Hong Nhung
Thuy



가족과휴가

Nguyen Phuc Linh



친구와쇼핑

Vu Tram Anh



이쁜팔보기

Tran Huong Giang



친구와식사

Dang Thanh Dung



아이와놀이

Le Thi Hong Hoa



신나는놀이

Hoang My Linh



친구와여행

Nguyen Thi My Ly



자연과걷기

Nguyen Thanh
Chinh



책영화감상

Vu Thi Thanh Thuy



떡볶이자기

Luong Thi Thinh



가족과식사



기업 경영의 꽃 ERP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다

(주)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이사



선릉역지점 거래 기업

거대한 계산기로만 여겼던 컴퓨터는 미래를 뒤흔들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었고, 컴퓨터의 위력을 미리 알아본 한 청년은 당시 생소한 분야였던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회사를 창업하고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했고, 국내의 대표적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개발 기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춰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바로 영림원소프트랩이다.

글 장승 **사진** 김성재



ERP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시작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979년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부에 입사한 권영범 대표이사. 당시는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도입한 초창기로, 막연하지만 컴퓨터가 미래를 뒤바꿀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컴퓨터사업부에 지원했다고 한다.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며 13년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 몰두하고 마침내 1993년 영림원소프트랩을 창업한다.

“1993년 영림원소프트랩을 창업하기까지 13년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절 소프트웨어 사업은 거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주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밤샘 작업을 수시로 행하는 열악한 사업 환경이었죠. 소프트웨어 분야를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한 번 개발한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 파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해서 팔아

야겠다는 생각으로 영림원소프트랩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 초기, 국내의 ERP 시장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ERP 접근성은 현저히 낮았고, 중소기업의 필요성은 외면당하는 현실이었다. 영림원소프트랩은 이러한 국내 ERP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ERP 패키지인 ‘K-System’ 개발에 성공, 시장에 공급하였다. 또 개발부터 5번의 업그레이드를 직접 주도하여 계속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였다.

“제 자랑 같아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ERP 제품 개발 최초부터 다섯 번의 주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PM(Project Manager) 역할을 제가 직접 맡아서 진행했기에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영림원소프트랩의 특징점

Step.1

탄탄한 입지, 미래지향적인 비전
30년 동안 굳건히 ERP 시장을 개척하고 시를 접목한 ERP 등 미래지향적인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Step.2

아시아 No.1을 목표로 전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법인 및 현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Step.3

수평적·탈권위적 기업문화
회사 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하며 직원의 성장을 위해 영웨이(永-WAY)협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발 진행,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까지 검토하는 설계 중심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연속성 있는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유리했고, 동일한 사람이 수행함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 역량, 경험이 쌓이고, 의사소통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 더 좋은 ERP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밑거름이 되어 반석이 되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영림원소프트랩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창업 2년 차에 언제 문을 닫아야 하는지 걱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가 되는 것을 권영범 대표이사는 알고 있었다. “위기는 창업 2년 차에 찾아왔습니다. 창업 첫해에 목표했던 윈도우용 개인정보관리 SW 패키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매년 두 배 이상씩 성장하

던 SW 패키지 유통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당 10만 원 내외의 SW를 무상으로 끼워 팔아 SW 사업의 가치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업 이전 다운사이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창업 구성원들이 있는데 회사 문을 닫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오기가 생겼고, 다행히 유공해운(SK해운)의 경영정보시스템 다운사이징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목표보다 두 달 먼저 프로젝트를 끝내는 과거에 힘입어 많은 수익을 내면서 다시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ERP 패키지를 출시하는 밑거름이 되어 회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기회 속에서 ‘경영을 더 잘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30년 동안 기업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ERP를 개발하여 기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운 영림원소프트랩은 이렇게 국내에서 ERP라는 한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



미래지향적인 기업 경영을 꿈꾸며

권영범 대표이사는 오래도록 좋은 회사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문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스스로 CCO(Chief Cultural Officer)를 자칭하며, 현시대가 요구하는 수평적, 개인주의적 기업문화에 맞춰 탈권위적 수평 조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회사 구조를 팀장 없는 자율 조직으로 확 바꿨습니다. 그에 반발해서 그만둔 임원과 팀장이 여러 명 있었을 정도로 충격적 조치였죠. 그런데 오히려 다음해부터 성장률이 그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 경영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견실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영림원소프트랩에서는 ‘영웨이(永-WAY)’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목적을 중시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자’는 기업 핵심 가치를 직원들의 일상생활까지 확장되도록 임직원 영웨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데 회사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 굳어지는 건 회사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림원소프트랩은 Flextudio 2.0, EverAsk

등 기업 경영과 기업문화를 돕는 플랫폼을 출시하고, 작년 8월에는 AI 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신제품 ‘K-System AI’를 선보이는 등 혁신적인 기업문화, 미래 경영에 대한 환기를 일으키며, 다방면으로 기업 경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영림원소프트랩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또 한발 앞서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회사의 비전은 ‘4-Ace 달성’입니다. ‘매출 1000억 원, 평균연봉 1억 원, 주가 10만 원, 아시아 No.1 ERP’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저는 창업 때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여 국선도 수련을 통해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체의 근육을 보강하기 위해 매주 남산에 오르고 있어요.” 권영범 대표이사는 지난 30년은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회상하며, 믿고 의지해주는 많은 고객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국내의 대표를 넘어서 세계 무대에도 약할 영림원소프트랩의 행보를 기대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은행과 함께 성장합니다**

Q. 대표이사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인간은 누구나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왜곡되고 억압되어 있기에 그것을 깨우쳐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가면 그것이 모여서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매년 독서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삶인지 등을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자극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Q.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창업 2년 차(1994년)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 존망의 기로가 왔을 때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IBK기업은행에서 모든 기업에게 무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기사를 보고 용기를 내서 선릉역지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첫 대출을 받았던 인연이 영창동으로 사옥을 옮겨서 두 주거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30년 동안 경영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굴곡이 있고, 어려운 일,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업은행이 영림원소프트랩의 첫 주거은행이기에 지금까지 든든한 파트너로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도 IBK기업은행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해주시는 기업은행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이사



**우수한 기술력으로 성장한
30년, 앞으로도 함께합니다**

Q. 선릉역지점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선릉역지점은 1979년에 개점,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조, 도소매, 건설, 서비스, 임대업 등 고유산업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클라우드,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신산업을 영위 중인 다양한 기업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여신 1조, 총수신 3조, 외국환 9억 불을 달성한, 큰 규모의 지점 중 하나입니다.

Q. (주)영림원소프트랩의 가능성, 비전과 강점은 무엇일까요?

A. 영림원소프트랩은 1993년 설립 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솔루션은 ERP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특히 한국형 ERP인 ‘K-System’ 패키지를 개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BI(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 경영분석 모델 서비스 등을 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에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IBK기업은행의 ‘가치금융’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영림원소프트랩에 대한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선릉역지점
권오삼 지점장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IBK창공 기업

IBK창공 마포

병원 치료의
지평을 넓히다



(주)글라우드

(주)글라우드는 의료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해 의료의 보편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저스트스캔을 운영하고 있다.



glo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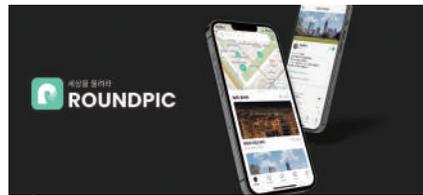
IBK창공 구로

3D 지도 제작
플랫폼



(주)비지트

(주)비지트는 사용자 참여형 3D 지도 제작 플랫폼 '라운드픽'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도 데이터 분야 차별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visitandregular.com

IBK창공 부산

단 하나뿐인
나만의 여행



(주)트립빌더

(주)트립빌더는 초개인화 시대에 발맞춰 여행자의 성향과 특징을 분석해 나만의 여행 코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한다.



tripbuild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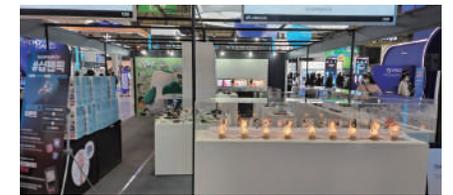
IBK창공 대전

최적의 굿즈 제작
플랫폼



샵팬픽

샵팬픽은 크리에이터 및 기타 IP의 굿즈 제작을 간편화하고 판로 개척 솔루션을 제공하는 굿즈 제작 전문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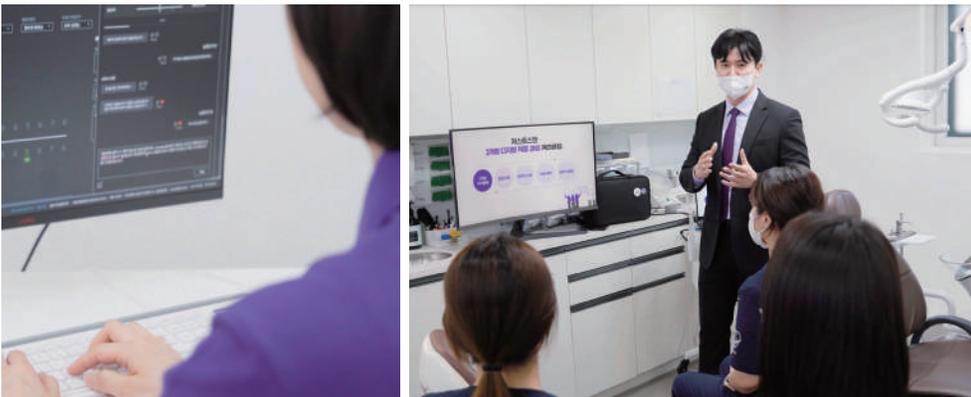
shopfanpick.com

IBK창공 **마포**

병원의 미래를 엿보다

gloud

(주)글라우드는 병원 치료의 치료시간 및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플랫폼 ‘저스트스캔’을 운영한다. 현재의 의료 산업 구조에서는 의료진이 단순한 진료 업무를 넘어 행정, 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비용 중 약 85%가 인건비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 외 영역에서도 고임금 의료진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오프라인 위주의 공급망이 의료서비스 비용을 높게 만들고 있다. (주)글라우드는 의료산업 전체 구조의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시키고자 저스트스캔을 론칭했다. 저스트스캔은 디지털 진료 구축 서비스 ‘저스트스캔 온라인’과 1시간 초과 진료 구축 서비스 ‘저스트스캔 익스프레스’로 운영되고 있다. 저스트스캔 온라인은 ‘디지털 치과의료기기’, ‘온라인 디지털 덴티스트리 진료 시스템’, ‘디지털 진료 워크플로우 교육 시스템’, ‘실물 보철’ 등을 공급한다. 저스트스캔 익스프레스는 1시간 안에 보철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생산 의료기기(3D프린터 등)’, ‘실시간 보철 디자인&슬라이싱’, ‘1시간 초과 진료 워크플로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글라우드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치과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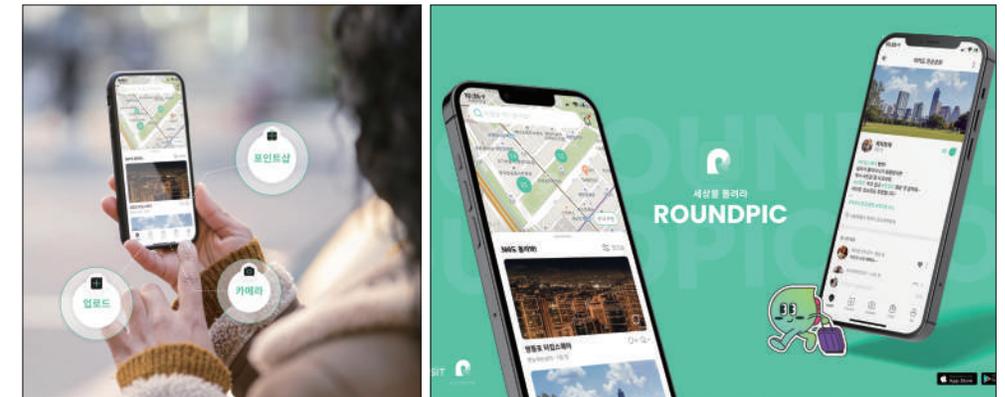


IBK창공 **구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3차원 지도



(주)비지트는 사용자 참여형 3D 지도 제작 플랫폼 ‘라운드픽’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로드뷰는 업데이트가 늦고, 자동차 도로의 정보만 제공되며, 지적도 좌표 오류에 따른 토지 소유 문제 등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운드픽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공간을 스캔하면 웹과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이를 바탕으로 3차원으로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한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API 연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며, 구글맵 Street-View에 실시간 연동할 수 있다. 이러한 라운드픽은 부동산 분야, 호텔 및 상업시설, 쇼핑,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2021년 4분기 11,239건에 불과했던 조회수가 2023년 1분기 11,972,100건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더욱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주)비지트는 관광지도 서비스를 넘어 국가적으로 지도 데이터 취득을 쉽게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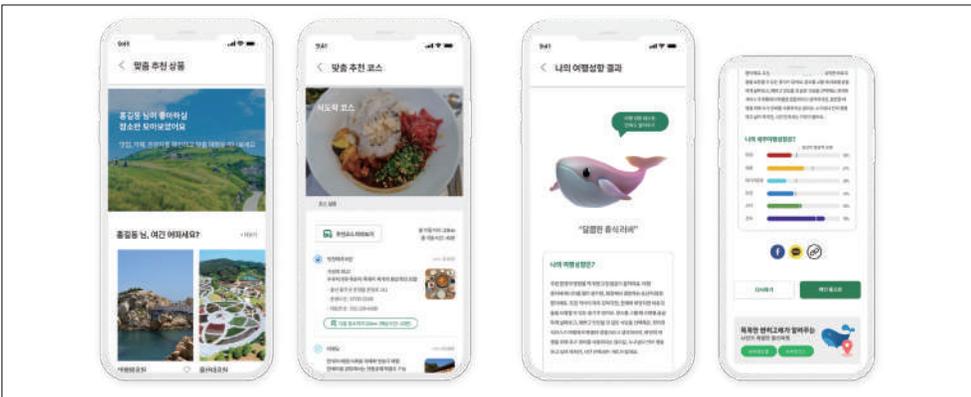


IBK항공 부산

초개인화 시대의 맞춤형 여행 AI 서비스



초개인화 시대에 따라 나만의 여행을 원하는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여행 성향이나 취향에 맞춘 여행 코스 추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화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기업의 매출이 20%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트립빌더는 여행자의 성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여행지별 성향과 특징 데이터를 조합해 개인 맞춤형 여행지 추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여행지의 혼잡도, 운영 상태, 위치, 주변 인프라, 여행자의 감정, 부정적 요소 등을 분석해 이를 여행지 추천에 활용한다.** 특히 여행사 클라이언트의 검색 기록을 비롯해 구매 이력 등의 로그데이터와 각종 SNS 채널이 보유한 콘텐츠별 '감성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여행자 감성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여행사, 숙박업체, F&B, 모빌리티, 액티비티 등 기업에게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관광 솔루션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트립빌더는 여행 준비의 편리성과 여행 진행 중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한 토탈 케어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IBK항공 대전

크리에이터와 팬덤을 위한 굿즈 솔루션



우리나라의 1인 미디어 시장은 해가 다르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팬덤의 구매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광고 시장에서 머천다이즈 시장으로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팬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자신의 IP(지적재산권)가 담긴 다양한 제품 및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제작 비용부터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등 복잡한 과정에 따른 진입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샵팬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리에이터가 비용 부담 없이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유통, CS, 정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크리에이터를 넘어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IP를 활용해 다양한 팬덤에 굿즈 상품을 제공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샵팬픽은 기존의 기성품에 IP를 인쇄하는 POD 제품이 아니라, 커스텀 제작이 가능한 다양한 공장 인프라를 활용해 100% 커스텀이 가능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크리에이터와 팬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해주고 있으며, 자체적인 판매 데이터와 크리에이터 1:1 관리 시스템, 사전 수요조사를 위한 펀딩 시스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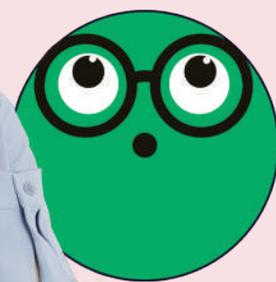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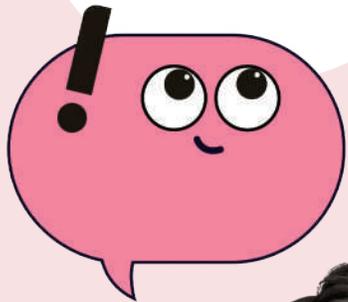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

머릿속에서 생각은 소용돌이치고, 해야 할 말이 정리되긴커녕 뒤죽박죽,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면 이제부터 알아두자.

글 편집실 **솔치** 정신의학신문, 월간 인재경영, 말버스 유튜브



with IBK

소통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소통 방식

타고난 성향은 물론 성격, 직·간접적인 경험, 생활 방식과 태도,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한 개인의 소통 방식이 형성된다. 어린 시절의 양육자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 인정, 공감받은 경험 또한 영향을 미친다.

진정한 공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는 '이해', 정서적 반응을 가리키는 '감정', 타인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정신 상태로 들어가는 '공유', 타인과 자신의 경험 간 차이를 인지하는 '피아 구분'을 포함한다. 가까이 다가가는 동시에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 역시 공감에 해당한다.

소심하고 섬세한

소심하거나 말수 적고 섬세한 성향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해 고민을 호소하곤 한다. 자기주장이나 자기표현보다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데 익숙해진 까닭이다. 갈등을 피하고자 자기표현보다 양보를 택한 것이 소통의 방식으로 고착화됐을 수 있다.

원활한 소통

스스로의 생각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 가깝고 소중한 대상과 대화하고, 인정과 공감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대화자의 수요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하고도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자기 개방과 자기 검열



자기 개방

친밀한 이와 소통에서 먼저는 자기 개방이다. 상대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힘든 것인지, 어떤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상황이나 일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은 이러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지 등 사안에 대해 나눌수록 관계의 친밀도는 높아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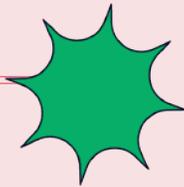
흔히 부부나 연인, 가족 등 가까울수록 서로 조율하고 맞추려는 노력을 놓치지 쉽상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네 마음은 내가 꿰뚫고 있으니'처럼 지레짐작하거나 선부르게 판단한다면 대화도 관계도 발전하기 어렵다.

자기 검열

이해, 인정, 공감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이가 나빠질지 몰라'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자기 검열을 반복한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미리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자.

표현은 솔직, 명료

머릿속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부터 해보자. 생일을 맞은 나를 위해 연인이 꽃다발과 편지를 내밀었다면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정말 고마워"라고, 연인이 생일을 잊고 지나쳤다면 "내 생일을 잊고 지나가니 실망스럽고 속상하다"처럼 말하는 식이다.



말하기를 다그치는 상대방에겐



누군가 다그칠 땐

"다그치면 말하기가 힘들니 기다려 줘", "지금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다시 얘기해" 하면서 사이를 두었다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제의 대화는 잊고 넘어가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

괜한 걱정 말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존중하는 시간을 보내야 소통의 문을 열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얘기한다고 해서 약해 보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힘들 땐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니까.

소통의 전략

타인에게 생각을 표현할 때 높은 기준을 부여해 어렵게 말하려고 하지 말자. 이야기를 전할 땐 한 번에 너무 많이 쏟아내지 않도록 한다. 서로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메모로 정리하기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지나칠 수 없다. 소소하고 생각해 전할 말을 못하면 이런 것이 누적돼 훗날 어떻게 불어날 지 알 수 없다. 다이어리나 노트에 생각을 정리해두는 방법도 있다.



외래어, 사투리 아니었어?

알고보니 한국어에 표준어라고?

외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를 꼽을 때 자주 언급되는 한국어!
빨간색도 붉은색, 빨강, 붉그스름하다 등 다양한 표현과 언어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도 몰랐던 표준어와 그 유래를 알아본다.

글 편집실 출처 국립국어원



시나브로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인식할 사 이도 없이 조금씩 스며들거나 변화한다는 속담인 ‘가랑비에 옷 젖는다’와 비슷 한 뜻을 가지고 있다. 시나브로의 유사어로는 ‘은밀하게’, ‘살금살금’ 등이 있다. 예시. 바람은 불지 않았으나 낙엽이 시나브로 날려 발밑에 쌓이고 있었다.
슈룹	‘우산’의 순우리말이다. 훈민정음해례본에 ‘슈룹’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어를 강요하는 정책이 시작 되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단어다. 그러나 요즘 들어 순우리말을 되찾 자는 움직임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슈룹>을 계기로 전보다 많은 사람이 이 단어를 알게 됐다. 예시. 깜빡하고 차에 슈룹을 두고 내렸다.
거시기	많은 사람이 사투리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는 표준어다.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말이나 단어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거나 분명하게 적시해 단어를 말하기에는 난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크게 나누면 2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①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 는 대명사. ②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부할 때 쓰는 군소리. 예시. 자네도 기억하지? 우리 동창, 거시기 말이야, 키가 제일 크고 늘 웃던 친구.
시방	거시기와 같이 사투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 또한 표준어다.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라는 뜻의 부사와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라는 뜻의 명사로 자주 쓰인다. 참고로 같은 뜻을 가진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다. 예시. 내가 시방 시장하니 어디 좀 들어가 앉읍시다.
곶사리	‘곶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을 뜻하 는 단어다. 옛날 노름판에서 쓰이던 말이 표준어가 된 특이한 사례로 많은 사 람이 비속어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표준어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로는 ‘결 다리’, ‘깍두기’가 있다. 이 두 단어 또한 표준어다. 예시. 여기서 곶사리 끼고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놀아라.

「The Art Plaza : 을지로 by IBK」 개최

신진작가 지원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각예술 전시 및 아트마켓 「The Art Plaza : 을지로 by IBK」를 10월 23일까지 개최했다. 을지로 소재 문화예술 공간과 연계해 펼쳐지는 도심 예술 축제로, 123명의 참여작가가 3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방문객이 소망 메시지를 작성해 기부함에 넣으면 기부금을 적립하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Hope in Heart」 등도 운영됐다. 작품 구매 고객에게는 IBK카드(신용·체크) 결제 시 5% 현장 할인(최대 5만 원, 일부 작품 제외) 혜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카드 결제가 가능한 「IBK BOX POS」를 무료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 위한 「열린관광지 나눔여행」 실시

10월 11~12일 전주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열린관광지 나눔여행」을 실시했다. 「열린관광지 나눔여행」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한 무료 여행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전주를 포함한 전국 132개 관광지를 편히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참여 기업으로는 신성피엔텍, 이온폴리스, 우광테크, 천우굿프렌즈, 한국후꾸구 등 인천 소재 5개 중소기업이며, 총 21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전주동물원, 한옥마을, 한지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민팅」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ESG 이벤트

12월 20일까지 중고 ICT 기기 플랫폼 기업인 「민팅」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ESG 이벤트가 진행된다. 민팅에서 중고폰 판매 후 기업은행 신규 계좌로 판매 보상을 수령한 고객 대상이며, 선착순 3000명에게 추가 보상금 2만 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페이지(ibk.kr/mintitcube)를 통해 기업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한 경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팅 앱과 홈페이지(www.mintit.co.kr), IBK기업은행 공식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과 민팅은 앞으로도 중고폰 시세 조회 서비스 등 ESG 제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AI 음성봇 상담 서비스 「IBK바로」 출시

AI 음성봇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대고객 상담 서비스를 출시한다. AI 음성봇 「IBK바로」는 연체·만기·상품 안내와 같은 통지성 안내 업무를 시작으로, 향후 아웃바운드에서부터 인바운드 영역까지 단계적 확장을 통해 상담 업무를 자동화해나간다. 「IBK바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설계 단계부터 고객에게 최대한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중점을 뒀다. 향후 「보이는 음성봇」 콘셉트의 멀티모달 기능을 접목해 고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토스배구단 응원 패키지 상품 출시

알토스배구단의 「도드람 2023~2024 V-리그」 활약과 우승 염원을 담은 패키지 상품 「IBK 알토스배구 우승기원 D-day적금」 신상품과 「IBK 알토스카드」 신규 디자인을 선보인다. 「IBK 알토스배구 우승기원 D-day적금」은 IBK기업은행 스테디셀러인 「IBK D-day적금」 기반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기간은 6개월이며, 올해 12월까지 5만좌 한정 판매된다. 「IBK 알토스카드(체크카드)」는 알토스배구단 대표 캐릭터인 토랑이를 활용한 새 디자인과 선수들의 친필 사인을 담은 디자인을 출시했다.



경영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리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경기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리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과 「Easy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으로 구성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생존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로 최대 2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유예한 후 기업 경영 상황 회복 이후 최대 5년간 나눠 부담하며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이달의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뽑히신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11월의 단어] 착착 정리하는

위의 주어진 6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재치 있는 언어유희는 모두 허용됩니다.

N행시 예시

*아래 N행시는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삶에

리(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야지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는(은) 근슬쩍 화를 내고 있다

N행시 이벤트 참여하기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나 엽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11월 1일 ~ 11월 30일(엽서는 30일까지 도착)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로 로그인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12월 15일 이내



N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



마 요네즈에 꼭 찍은 셀리리를
음 미하며 듣는
은 은하고 달콤한 음악은
서 르다섯 나에겐
너 무나도 소중한 행복이자
개 미처럼 일만 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O아-

마 음이 울적하고 쓸쓸할 때
음 악을 들으며 한 잔의 커피향에 빠져볼 때
은 혜롭게도 잠자는 나의 휴대폰의 "땡땡" 문자 알림에
서 두르다 그만 발등을 짚어도
너 무 아프지만 얼굴이 방긋이 되는
개 인적인 소견이지만 저는 누구 말대로 훈수이나봅니다.

-강O미-

마 지막으로
음 악을 듣는다면
은 은하고
서 정적인
너 의 목소리를
개(계) 속 듣고 싶다.

-김O혁-

마 음을 다잡으려
음 악을 들었다
은 은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자
서 서히 다른 마음이 또 일었다
너 울대는 물결처럼 움직였다
개 울 같은 내 마음을 어찌할까?

-강O철-

마 실가서
음 유시인을 만나
은 은한 시 낭송을 듣노라면
서 까래 너머
너 와가 지키는
개 울음은 오늘도 시큰둥하게 흐른다.

-심O만-



이달의 인증샷

<with IBK> 11월호에 소개된 맛집과 여행지를 직접 방문해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11월호에 소개된 곳]

36p IBK맛집노트 경상남도	42p 발길 닿는 길 도심 고궁나들길	54p IBK산 가지산	64p IBK버킷리스트 반려견 어질리티
------------------------	----------------------------	--------------------	-----------------------------



뒷면에
공간별 풍수 인테리어가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 날 잡아서 정리해야지 하면서
하염없이 미루게 되는 일들이 있다.

책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는 책장이나
혹은 학창 시절 썼던 짧은 글,
누군가에게 받았던 편지,
몇 년간 찍은 사진이 담긴 노트북의 폴더 같은 것들.

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생각, 감정 역시
비우고 정리할 때 비로소 여백이 생겨난다.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채우기 위해
하나씩 착착,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풍수지리 따라 다시 꾸며본 우리 집 인테리어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어쩐지 흘러들을 수만은 없다.
복을 부르는 풍수 원리는 기본, 미감과 기능을 모두 잡은 공간별 풍수 인테리어.



#부엌

햇볕과 통풍을 기억할 것

첫째는 정리 정돈과 청결이다. 건강과 재물운을 주관하는 곳이므로, 벌이 들어 통풍이 잘 돼야 각종 식기와 식자재의 살균과 건조, 보관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창문이 있는 것이 좋는데, 창가에 작은 화분이 있으면 기운이 더욱 상승한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오븐, 토스트기 등 불을 쓰는 전자제품은 사이를 두고, 식기는 바로바로 설거지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칼, 가위 등 날카로운 주방 도구는 되도록 보이지 않게 안쪽에 보관한다.

#안방

어둠게 할수록

현관은 밝게, 안방은 어둠게 해야 재물이 쌓인다고 한다. 안방 문과 침대는 대각선 구도로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침대의 경우 낮은 위치에 있으면 금전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높이 있는 편이 좋다. 만약 침대를 이동할 예정이라면 암막 커튼과 함께 설치해 위치와 밝기를 조정해보자.

#화장실

보송보송하게, 깨끗하게

풍수적 관점에서 화장실은 모든 기운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다. 항상 청결하게, 보송보송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 자주 환기한다. 습하거나 어둡다면 집 안에 좋지 못한 기운이 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리하도록 하자. 예부터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록 식물을 배치해 좋은 기운을 불렀다고 한다. 조개, 바다와 관련한 무늬가 있는 물건을 두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도 한다.

#현관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

풍수지리적으로 현관이 중요한 까닭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곳이자 복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이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울과 문을 정면으로 마주 놓으면 밖에서 거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되므로 이런 배치를 경계한다. 현관을 열었을 때 오른쪽에 거울이 있으면 출세운, 왼쪽에 거울이 있으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한다.

#거실

집안과 현관을 잇는 공간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기운이 거실을 통해 집 전체로 퍼질 수 있다. 따라서 소파는 창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현관을 등진 위치에 놓는 것이 좋다. 거실의 커튼은 너무 두꺼운 소재나 무늬가 많은 것을 피하고, 옅은 색에 밝고 깔끔한 디자인의 커튼이 알맞다. 또 거실에는 물건을 너무 많이 두지 않도록 한다.



참고
'행운을 불러오는 공간의 비밀 풍수 인테리어', 브레인지미디어, 2023.7.20.
'양택삼요', 광주매일신문, 2023.7.26.

#조명



밝을수록, 화사할수록

부엌 조명은 건강, 재물운과 연관 지어 흰색 등 밝은색으로 꾸미는 것이 좋다. 풍수 인테리어 원리상 흰색은 순수와 청결, 깨끗함을 상징한다. 밝은 베이지색이나 환한 개나리색도 버금간다. 황금색, 노란색 계열은 예부터 재물의 색으로 여겨졌다. 식탁 위에 다는 조명은 밝을수록 좋고, 전반적인 주방 인테리어 톤은 밝고 따뜻하고 화사하게 꾸미는 것이 좋다.

#소품



그림보단 사진들, 꽃이라면 해바라기를

인물화나 초상화보다는 사진이 좋는데, 가족 사진의 경우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다. 사진이 아닌 그림을 걸고 싶다면 화사한 꽃 그림, 특히 부와 금전운을 부른다고 널리 알려진 해바라기 그림을 추천한다.

#컬러



색이 기운을 부른다

노란색이 부와 금전운을 부르는 데 반해 파란색 계열은 차분하게 해주거나 집중력을 강화한다. 녹색 계열은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흰색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활기를 불어넣는다.

#정리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

풍수에 일가견 있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은 '비우기와 버리기'에 있다. 풍수에 맞춰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이 무리라면 가볍게 집 정리부터 시작해보자, '깔끔하게' 말이다.

